



6 Interview

자랑스러운 동국인
프로듀서 김재형 동문
대한민국 사극열풍의 주역
김재형(국문6졸) 동문을 만나
그의 40여 년 연출 인생을 들어봤다.

동대신문

금주어린

재물과 색(色)은 마치 칼날 끝에 묻은 꿀과 같아서 한 번 맛을 들이면 쉽게 끊지 못한다. 재물과 색을 탐하는 것은 마치 어린이가 칼끝에 묻어 있는 꿀을 핥아먹는 것과 같다.

사십이장경

Cover Story 6.2 지방선거, 대학생의 선거 참여가 필요하다

투표 참여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

선관위도 부재자 투표소 설치 기준 완화해 대학생 투표 도와야

6.2 지방 선거를 앞두고 대학생들의 선거참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대학생들의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둘러싸고 투표소 설치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학생들과 이를 받아 들이지 않는 중앙선관위의 대립도 논란이 되고 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전체 유권자 투표율은 51.6%였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집중돼 있는 20대 초반 유권자들의 경우 투표율이 38.3%에 불과했다. 이렇듯 대학생들의 투표율은 계속 30%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지만 최근 대학생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대학생들의 투표율이 줄곧 낮았던 이유는 대학생들의 관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또 학생들의 관심 부족 뿐만 아니라 대학생 투표율이 낮다는 이유로 후보들의 선거공약이 미흡(未治)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연대의 주된 목적은 대학생 투표율을 대폭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부재자 투표소 설치와 지방 출신 학생들의 전입신고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대학생의 식지형'(사회동향연구소발표)을 조사한 결과 전국 대학생 73.5%가 "오는 지방선거에 투표 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대학생이 정치에 대한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리대학의 경우, 총학생회에서 10일부터 4일 간 각 단과대 건물 마다 부재자 투표소 서명 부스를 설치했다. 하지만 후보 부족과 학생들의 참여 부족으로 서명을 1000여 명밖에 받지 못했다. 이에 박인우 총학생회장은 "현행 기준 2000명을 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위가 부재자 투표소 설치 신청자가 부족하다고 해서 투표소를 설치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막연한 캠페인보다는 부재자 투표소 확대를 통한 젊은 층의 투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박인우 총학생회장은 "지방선거 후보들이 대학생이 처한 현실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지 못 한다"고 말했다. 김준석(정치외교학) 교수는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대학생들의 무관심도 있지만, 후보자들의 공약이 대학생들의 요구에 부적절한 상황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 각 대학은 각종 행사와 퍼포먼스로 학생들의 선거참여를 독려(督勵)하고, 부재자 투표소 설치 서명을 받았다. 이경섭(경찰행정3, 울산)군은 "투표 때문에 고향에 내려가는 것은 번거로운 것 같아 부재자 투표를 신청했지만 학교 내에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되면 좀 더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우

이 같은 상황은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전국 30개 대학에서 이와 같은 부재자 투표소 설치운동이 진행되고 있지만 부재자 투표소 설치 허가를 받은 곳은 12곳 뿐이다. 이런 까닭에 학생들은 부재자 투표소 설치 기준을 500명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진희(국제통상3, 창원)군은 "선

이재철(정치외교학) 교수는 "대학별 상황을 고려해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학생들의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부재자 투표소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학생들의 낮은 투표율은 선거 때마다 지적되고 있는 문제다. 부재자 투표소 설치 운동은 대학생 투표율 상승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참여 독려라는 차원에서 중앙선관위의 역할 제고(提高)가 필요할 때다.

김윤수 기자
yshero21@dongguk.edu

대학생 유권자연대 발족

하지만 최근 6.2 지방 선거를 앞두고 대학생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11일 서울 연세대에서 대학생유권자연대 '2U' 발족식이 열렸다. 대학생유권

보리수

석가탄신일



마성 스님
팔리문화연구소장

한국불교의 최대 명절은 음력 4월 8일이다. 불교의 개조(開祖) 석가모니불께서 탄생하신 날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날의 공식 명칭은 '석가탄신일(釋迦誕辰日)'로 되어 있다. 1975년 국가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그렇게 명명(命名)했기 때문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674호)에는 양력 12월 25일은 '기독탄신일'로 표기되어 있다. 먼저 국가공휴일로 지정받은 '기독탄신일'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석가탄신일'로 정해진 것 같다.

그러나 불교도들은 '석가탄신일'보다는 '초파일(初八日)', '불탄절(佛誕節)', '부처님 오신 날' 등으로 더 많이 부르고 있다. '초파일'은 사월초파일(四月初八日)의 준말로 음력 4월 8일에 부처님이 탄생했다는 의미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불탄절'은 '부처님이 탄생한 날'이라는 뜻이다.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처님 오신 날'은 1970년대 후반부터 사용된 신조어다. 그런데 예전에는 불교에서 '성인이 탄생한 날'이라는 의미로 '성탄절(聖誕節)'이라고 불렀다. 지금은 기독교에서 전용어처럼 쓰고 있지만 원래는 불교용어였다.

한편 남방 상좌부 전통에 의하면 부처님은 웨사카 월(月)의 보름날에 탄생, 성도, 열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 남방불교국가에서는 음력 4월 15일을 웨사카(Vesak)이라고 부른다. 웨사카는 팔리어 웨사카에서 유래된 말이다.

1999년 12월 13일 제5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매년 음력 4월 15일을 '유엔 웨사카데이(United Nations Day of Vesak)'로 지정했다. 이로써 웨사카데이는 세계의 성스러운 날(Holy day, 聖日)이 되었다. 이날 전 세계불교도들은 부처님의 탄생, 성도, 열반이라는 세 가지 사건을 기념하는 축하행사를 봉행한다.

우리나라의 불탄절 주요행사는 관불회(灌佛會)와 연등회(燃燈會)다. 관불회는 욱불회(浴佛會)라고도 하는데, 부처님 탄생 때 용왕이 향수로 목욕시켰다는 탄생 설화에서 유래된 것이다. 지금은 탄생불을 목욕시키는 의식을 봉행한다.

연등회는 불탄절의 백미다. 등불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자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각양각색의 등불을 밝히고 진행하는 제등행렬 혹은 연등축제는 국제적인 페스티벌에 전혀 손색이 없다. 부처님의 탄생 의미는 무엇인가?

부처님 오신 날로 인해 다음 주 신문은 휴간합니다. 1494호는 오는 5월 31일자에 발행되오니, 독자 여러분의 양해바랍니다.

금주의 동대신문

2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선정

5 대학언론 편집권 침해 사례를 통해 본 언론자유

7 봄 끝에 담아낸 부처님의 가르침

12 동악에 꽃피운 1만겹(畝)의 인연

제1회 방송사 동문 언론인 초청 취업설명 및 간담회

설명회 개요
- 일시 : 2010년 5월 19일(수), 26일(수) 19:00~ 동국대학교

- 진행 식순
개회 (사회자)
참석자 소개(사회자)
학교대표 인사(센터장, 김관규 교수)
재직 동문대표 인사
동문 설명회

5월 19일 (수) 19:00 ~ 21:00 문화관 4층 K 411 초허당 세미나실

- 기자부문..... 김영은(KBS기자, 신방 04)
촬영기자부문..... 박종일 (MBC 보도국 국회반장, 물리학과 86)
기술부문..... 심인범 (KBS영상그래픽팀 부장, 전자 86)
아나운서부문..... 이정민 (KBS아나운서, 광고홍보99)
경영부문..... 윤재혁 (KBS홍보팀 차장, 정의 96)
성우부문..... 김지혜 (KBS성우, 지교 92)

5월 26일 (수) 19:00 ~ 21:00 문화관 4층 K 411 초허당 세미나실

- PD부문..... 노윤구 (KBS교양제작 팀장, 연극영화 77)
김학순 (KBS아침마당 부장, 무역 79)
아나운서부문..... 이재용(MBC아나운서부장, 수교 84)
한상권 (KBS아나운서, 경영 89)
기자부문..... 김명성 (KBS 전주총국 보도국장, 사학 80)
카메라부문..... 김만태 (MBC '아마존의 눈물' 촬영감독, 사회 91)
경영부문..... 남철우 (KBS대의정책팀 차장, 농경제 89)

동국미디어센터 · 언론고시반 · 신문방송학과 · KBS, MBC재직동문회

5.18 광주 민주화 운동 30주년의 의미

야만적 폭력에 맞선 한국 민주주의의 발화점

군부 권력탈취에 저항해 민주화의 단초(端初) 마련한 현대사의 비극



▲민주 회복을 요구하며 거리시위를 벌이고 있는 광주 시민들의 모습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1980년 5월은 신군부의 쿠데타에 대한 대학생의 저항이 무섭게 타오르던 시기였다. 이른바 '서울의 봄'의 절정이었다. 이에 당황한 쿠데타 세력은 불법적으로 계엄령(戒嚴令)을 발포했고 대학에는 휴교령이 떨어졌다. 이 계엄령에 따라 전국의 주요 대학을 급습한 공수부대가 전남대학에 진주(進駐)하여 학교에 있던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한 것은 새벽 2시경이었다.

전남대 학생에 공수부대 무차별 폭력

5월 18일 아침이 밝았다. '휴교령이 내리더라도 학교 앞에서 만나자'는 약속에 따라 등교한 학생들은 정문에서 진을 치고 있는 공수부대와 마주쳤다. 학생들이 물러서지 않자 M16총검으로 무장한 공수부대는 무차별 폭력을 자행(恣行)했다. 이전에 경찰들은 학생들의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이 공수부대는 도피하여 집안에 숨어있는 학생들도 끌어내서 가리지 않고 진압봉을 휘둘렀다. 학생들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고 실신하여 병원으로 실

려 갔다. 분노한 대학생들은 시내로 진출하여 시위를 계속했다. 소문을 듣고 몰려든 학생들의 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경찰이 밀리기 시작하자 중무장한 공수부대가 직접 투입(投入)되어 학살적 폭력을 자행하기 시작한 것은 18일 오후 3시 경이었다. 이들은 당구장에 들어와 손에 초크가 묻어있지 않은 청년들을 가려내어 진압봉으로 후려쳐 끌고 갔다. 테이트하다 잡아서 애원하는 여성에게도 진압봉을 휘둘러 쓰러뜨렸고, 도성의 큰 거리에서 옷을 벗기고 대검으로 난자(亂刺)하며 희롱했다. 이것은 그 당시 국민의 군대가 국민을 향해 광주에서 저지른 잔혹한 만행의 시작에 불과했다.

학생·노동자 등 수백명 사망

분노에 몸을 떨던 시민들이 대학생들의 시위에 합세했고, 뒤이어 고등학생들까지도 가세했다. 증강(增強)된 시민들의 저항은 더욱 거세졌고 공격적이었다. 바리케이드가 쳐지고, 시민들과 공수대원 간에 육탄전도 벌어졌다. 공수부대의 충격으로 시민들이

죽어가자, 시민들은 인근지역 예비군 무기고에서 가져온 총으로 무장하고 시가전에 들어갔다. 여자들은 음료수와 빵, 감자와 주먹밥, 라면과 수건을 준비하여 시위대에게 나누어주었다. 광주시민 80만 인구 중에서 30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 시민이 무장하여 시가전으로 맞서자 계엄군은 도처에서 시민에 의해 포위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결국에는 시 외곽으로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민의 힘이 탱크로 무장한 폭력을 이겨냈던 것이다. 그리하여 광주는 야만적인 권력의 폭력으로부터 해방(解放)되었다. 시민들 스스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공공체를 건설해나갔다. 피로 얼룩진 거리를 청소하고, 시민적 질서를 확립했다. 부족한 생필품을 서로 나누어 쓰고, 창고를 열어 식량도 배급했다. 매일 도청 앞 광장에서 시민대회를 열어 중요한 일을 토론했고 결정했다. 자치기간 동안엔 은행은 안전했으며, 범죄와 약탈도 거의 없었다. 아직 안정된 체계를 갖추지는 못했지만 시민들은 자유로웠고 진정한 주인이 되었던 것이다. '해방 광주'의 이 경험은 현대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값진 유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27일 새벽에 계엄군의 점령 작전이 시작되었다. 탱크를 앞세운 중무장 정규군의 공격에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 알면서도 시민군은 결사항전의 길을 선택했다. 먼저 간 열사들의 죽음을 생각했고, 폭력 앞에 굴종(屈從)할 수 없다는 역사적의 발로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그 자리에서 장렬하게 산화(散華)했다.

민주주의의 초석 제공한 현대사의 비극

30년 전에 있었던 이 10일간의 항쟁은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사회운동에 꺼지지 않는 횃불을 비추고 있다. 그 핵심은 부당한 권력의 목숨을 걸고 굴종하지 않는 무장투쟁의 치열성이다. 우리사회에서 한국전쟁 이후 계속된 반인간적 독재 권력에 그 어느 공동체도 감히 실천할 수 없었던 강력한 투쟁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 치열성은 그 후 한국 사회운동사에서 불멸의 동력으로 작용했다. 그 힘이 80년대 한국 사회운동의 원천이 되었고 마침내 신군부 학살만행의 주역들을 법정에서 단죄(斷罪)할 수 있게 했다. 말하자면, 80년 5월 27일에 죽은 항쟁을 17년 후에 부활시킨 '항쟁승리의 역사'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년간제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

5.18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 강연회

광주시민군에게 듣는 5월 민주화운동의 기억



올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우리대학 '5.18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 광주 역사기행 준비 위원회'의 주최 하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피 흘렸던 시민들을 기념(記念)하기 위한 행사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기념행사의 일환(一環)으로 지난 11일 학림관 소강당에서는 총학생회의 후원으로 '광주 시민군에게 듣는 80년 5월 이야기'라는 주제의 강연이 개최됐다. 이번 강연은 80년 당시 광주 대동고 3학년 때 광주시민군에 직접 참여(參與)했던 이덕준 씨가 맡아서 진행했다.

이덕준 씨는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평화가 함께하길 바란다"며 이야기의 첫머리를 풀어놓았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교련(敎鍊)과목을 배우고, 그게 당연시되는 사회를 살았다는 이덕준 씨. 그는 강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덕준 씨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당시 학교 선생님들은 군부정권의 문제점을 지적(指摘)해 학생들에게 자주 이야기했다고 한다. 또한 학생들이 보충수업비 폐지를 위해 시위를 하는 등 그 당시 광주에는 이미 민주화 바람이 불고 있었다.

80년 5월 18일, 그는 트럭에서 공수부대가 뛰어내려와 시민들을 무차별 구타(毆打)하는 것을 목격했다. 또한 공수부대 6명이 40대 중반으로 보이던 아저씨 한명을 구타하는 모습을 생생히 봤다고 한다. 이덕준 씨는 "그 때 처음으로 사람이 맞아죽는 걸 봤다"며, "살려달라고 외치던 그 아저씨의 목소리를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다음날, 시위에 가담하기 위해 대동고 3학년들이 전교생을 이끌고 학교를 나섰다. 하지만 전투경찰이 이미 교문을 봉쇄(封鎖)한 상태였다. 학생들은 봉쇄된 정문을 피해 학교 뒷산을 넘어 버스를 타고 금남로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버스가 갑자기 멈췄다. 무슨 일인지 살펴보니 공수부대가 탑승한 트럭이 줄줄이 금남로로 들어서고 있었다. 한 시민이 공수부대가 타고 있는 트럭에 돌을 던지자 공수부대가 트럭에서 내려와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기 시작했다. 이덕준 씨는 "당시 돌을 던진 시민이 결국 공수부대에게 잡혔는데, 공수부대에게 구타당했고, 그로 인해 그 사람은 무릎연골이 깨졌다"며 공수부대의 잔혹한 만행(蠻行)에 분노를 표했다.

이어서 이덕준 씨는 목내 소리로 5월 23일을 회상했다. 단짝친구가 23일에 공수부대가 난사(亂射)한 총알을 얼굴에 맞고 숨을 거뒀기 때문이다. 그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난사된 총알에 목숨을 잃은 친구를 생각하면 총을 듣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27일 새벽, 마지막까지 항쟁하던 이덕준 씨는 결국 계엄군에게 붙잡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짓밟혔다. 또한 체포되어 영창(營倉)으로 후송됐는데, 바로 영창으로 가지 않고 도중에 어디가에 들러서 공수부대에게 구타당했다고 한다. 그는 "영창에 들어가서도 수사할 때 '맞고 시작하자'면서 질문도 없이 무조건 맞고는 했다"고 밝혔다.

이덕준 씨는 18일부터 27일까지의 민주화 운동을 회상하며 "그때야말로 스스로 선택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독재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이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시민군이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 소절은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지만 부모형제 나를 믿고 단합 이룬다'였고, 부를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다"고 밝혔다.

이덕준 씨는 광주시민이 당시 총을 들고 나선 이유는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중단된 상태"라며 완성되지 못한 민주화를 완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강연은 30년이 지난 그날의 현장과, 시민들의 피로 이뤄진 민주화의 역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던 자리였다.

이슬비 기자 beeya@dongguk.edu

▶3면에서 계속

이성진(동문, 2만원) 이성민(일반/기타, 1만원) 이성연(동문, 2만원) 이성영(동문, 10만원) 이수창(불교/기타, 1만원) 이수창(불교/기타, 10만원) 이순남(동문, 2만원) 이순욱(일반/기타, 2만원) 이순규(동문, 1만원) 이순남(서울/교수, 2만원) 이주익(일반/기타, 2만원) 이승진(동문, 2만5천원) 이승희(학부생, 10만원) 이시연(일반/기타, 2만원) 이영균(동문, 30만원) 이영심(불교/기타, 1만원) 이영재(불교/신도, 5만원) 이윤수(일반/기타, 1만원) 이원걸(동문, 5만원) 이원걸(기업/재단, 5만원) 이원철(불교/기타, 2만원) 이윤복(불교/신도, 1만원) 이은주(스님, 1만원) 이재동(일반/기타, 5천원) 이재명(일반/기타, 3만원) 이재일(일반/기타, 1만원) 이창에(불교/기타, 5천원) 이정훈(동문, 1만원) 이종하(동문, 2만원) 이종화(동문, 1만원) 이지은(불교/기타, 2만원) 이진규(일반/기타, 1만원) 이창무(동문, 5만원) 이준자(일반/기타, 1만원) 이태양(학부생, 5만원) 이태형(일반/기타, 2만원) 이태희(불교/기타, 3만원) 이한주(서울/교수, 4만원) 이현규(불교/신도, 2만원) 이현숙(일반/기타, 100만원) 이현욱(일반/기타, 1만원) 이효선(동문, 2만원) 인성스님(스님, 3만원) 일연스님(스님, 3만원) 임가군(동문, 3만원) 임계성(동문, 1만원) 임계성(동문, 1만원) 임금희(불교/기타, 1만원) 임계희(일반/기타, 1만원) 임세득(동문, 5만원) 임억만(불교/신도, 1만원) 임정금(불교/신도, 2만원) 임정민(일반/기타, 2만원) 임종민(동문, 2만원) 임태순(불교/기타, 2만원) 장동선(동문, 3만원) 장봉원(동문, 3만원) 전귀열(일반/기타, 2만원) 전효린(일반/기타, 5천원) 정광훈(동문, 50만원) 정대진(동문, 10만원) 정도진(대학원/기타, 2만원) 정연스님(스님, 2500만원) 정성진(동문, 1만원) 정연웅(동문, 5만원) 정철임(불교/기타, 2만원) 정운재(동문, 3만원) 정현스님(동문, 5만원) 정형숙(일반/기타, 1만원) 조복현(학부생, 4만원) 조은희(일반/기타, 1만원) 조은정(일반/기타, 1만원) 조은제(일반/기타, 2만원) 조인숙(불교/신도, 5만원) 조진영(동문, 3만원) 조한제(불교/신도, 1만원) 조현욱(불교/기타, 1만원) 조희숙(불교/신도, 5만원) 차교성(경주/직원, 5만원) 차홍기(동문, 2만원) 채명식(동문, 2만원) 채민재(일반/기타, 1만원) 철은수(동문, 5만원) 최경숙(일반/기타, 3만원) 최광순(일반/기타, 2만원) 최금순(불교/신도, 5만원) 최기만(불교/기타, 5만원) 최낙복(동문, 3만원) 최대석(동문, 10만원) 최동선(학부생, 5만원) 최미경(일반/기타, 1만원) 최부식(동문, 1만원) 최상권(동문, 10만원) 최수진(동문, 5천원) 최순열(서울/교수, 10만원) 최순호(기업/재단, 10만원) 최홍환(불교/신도, 1만원) 최우혁(동문, 10만원) 최준배(일반/기타, 1만원) 최태선(일반/기타, 1만원) 최해철(불교/기타, 2만원) 한경년(불교/기타, 3만원) 한경미(일반/기타, 3만원) 한기태(일반/기타, 5천원) 한순욱(일반/기타, 3만원) 한원영(불교/기타, 1만원) 한준수(불교/기타, 1만원) 한주식(일반/기타, 2만원) 한형민(동문, 2만원) 허진석(동문, 5만원) 허담스님(스님, 2만원) 형제희(동문, 5만원) 혜공스님(불교/신도, 1만원) 혜현스님(스님, 5만원) 홍동일(불교/기타, 5만원) 홍봉철(일반/기타, 2만원) 홍성기(동문, 5만원) 홍성규(동문, 5만원) 홍성소방서(기업/재단, 57만원) 홍성우(동문, 1만원) 홍성조(동문, 1만원) 홍인선(불교/신도, 2만원) 홍탁보쌈(기업/재단, 10만원) 황경환(기업/재단, 10만원) 황광자(불교/기타, 3만원) 황민수(동문, 1만

원) 황창근(경주/교수, 30만원) 효수스님(스님, 1만원) 효신스님(대학원/불교, 10만원)

단위기금

(주)로즈버드(기업/재단, 10만원) 감사사(사찰, 5만원) 강예원(일반/기타, 3천원) 강결계(일반/기타, 1만원) 강이일(경주병원/직원, 5천원) 강태원(서울/교수, 150만원) 강현성(일반/기타, 5천원) 강현숙(경주병원/직원, 3천원) 강현준(일반/기타, 5천원) 고택선(학부생, 2만원) 공재학(동문, 3만원) 공재영(일반/기타, 3천원) 광복수(동문, 1만원) 기획사(일반/기타, 5만원) 권영성(경주/직원, 2만원) 권영자(불교/신도, 10만원) 권우미(동문, 5천원) 김강희(경주병원/직원, 5천원) 김경(불교/신도, 3천원) 김경민(동문, 3천원) 김경은(일반/기타, 3천원) 김계진(불교/신도, 10만원) 김규연(일반/기타, 3천원) 김금순(불교/신도, 1만원) 김기준(동문, 3만원) 김기홍(경주/직원, 1만원) 김대식(경주한방/직원, 3천원) 김덕기(경주병원/직원, 3천원) 김덕자(동문, 4만원) 김도윤(일반/기타, 5만원) 김명숙(일반/기타, 5천원) 김명순(불교/신도, 3천원) 김문식(일반/기타, 20만원) 김미경(불교/신도, 3천원) 김미녀(일반/기타, 3천원) 김미숙(불교/신도, 5천원) 김미은(의료원/교수, 1만원) 김성필(경주병원/직원, 3천원) 김성영(일반/기타, 5천원) 김순희(불교/신도, 5천원) 김영희(경주병원/직원, 3천원) 김영욱(불교/신도, 3천원) 김욱희(일반/기타, 5천원) 김윤희(경주병원/직원, 3천원) 김인영(일반/기타, 3천원) 김자년(일반/기타, 5만원) 김재홍(일반/기타, 1만원) 김재홍(일반/기타, 3천원) 김경미(경주병원/직원, 3천원) 김경배(경주병원/직원, 5천원) 김경숙(일반/기타, 3천원) 김경연(스님, 1만원) 김정환(기업/재단, 5만원) 김태훈(불교/신도, 3천원) 김태중(경주병원/직원, 3천원) 김형국(동문, 1만원) 김형배(서울/직원, 4만원) 김혜

덕(불교/신도, 100만원) 김혜정(동문, 3만원) 김효분(일반/기타, 1만원) 김효순(불교/신도, 3천원) 김효주(경주병원/직원, 3천원) 김희수(동문, 2만원) 김희자(일반/기타, 3천원) 나희영(동문, 1만원) 대경스님(스님, 2만원) 도수영(경주병원/직원, 3천원) 문연복(기업/재단, 5만원) 류경원(경주병원/직원, 3천원) 류길영(일반/기타, 10만원) 류길현(불교/신도, 3천원) 명진스님(스님, 3천원) 모규숙(일반/기타, 3천원) 문은스님(스님, 1만원) 문복순(불교/신도, 30만원) 문진성(경주/직원, 1만원) 민노미(불교/신도, 3천원) 박갑식(대학원(행정), 1만원) 박경숙(동문, 1만원) 박경연(경주병원/직원, 3천원) 박경호(일반/기타, 5천원) 박권호(동문, 1만원) 박규원(동문, 1만원) 박노준(불교/신도, 1만원) 박미경(동문, 1만원) 박미향(불교/신도, 5천원) 박삼서(일반/기타, 300만원) 박승주(경주병원/직원, 10만원) 박용숙(불교/신도, 3천원) 박인옥(불교/신도, 3천원) 박재량(불교/신도, 3천원) 박치만(경주/직원, 5만원) 박현환(동문, 2만원) 배건우(동문, 1만원) 배규원(불교/신도, 3천원) 배연도(불교/신도, 3천원) 배윤정(불교/신도, 3천원) 배주영(경주병원/직원, 3천원) 배준남(동문, 10만원) 범정경(사찰, 3만원) 보명스님(동문, 1만원) 서순수(기업/재단, 10만원) 서인주(불교/신도, 3천원) 서정일(경주/교수, 3천원) 서준스님(스님, 5천원) 서혜준(불교/신도, 5천원) 석유식(일반/기타, 1만원) 성기봉(일반/기타, 3천원) 성미화(경주병원/직원, 3천원) 성은하(일반/기타, 5천원) 성호스님(스님, 1만원) 손명희(경주병원/직원, 3천원) 손병희(동문, 10만원) 손윤준(동문, 1만원) 송미영(불교/신도, 5천원) 송인희(경주병원/직원, 3천원) 송수스님(스님, 10만원) 신수진(경주병원/직원, 1만원) 신호갑(불교/신도, 3천원) 신호철(불교/신도, 5천원) 안규호(기업/재단, 1만원) 안대승(불교/신도, 10만원) 안병남(일반/기타, 1만원) 안수현(학부생, 1만원) 안은진(일반/기타, 3천원) 임

3천원) 알로킴(기업/재단, 5만원) 양형진(불교/신도, 1만원) 영수현(스님, 1만원) 오오철(동문, 10만원) 원길녀(불교/신도, 1만원) 월성원자력본부(기업/재단, 36만원) 유영봉(동문, 5만원) 유필순(불교/신도, 3천원) 윤상희(불교/신도, 5만원) 윤선호(불교/신도, 5천원) 이경미(경주병원/직원, 1만원) 이경설(경주/교수, 5만원) 이경자(불교/신도, 1만원) 이경하(기업/재단, 10만원) 이경희(일반/기타, 3천원) 이규옥(의료원/직원, 2만원) 이금숙(일반/기타, 5천원) 이금정(불교/신도, 15만원) 이기연(일반/기타, 3천원) 이동욱(경주/교수, 1만원) 이리라(일반/기타, 2만원) 이만희(동문, 1만원) 이보영(경주병원/직원, 3천원) 이상조(일반/기타, 2만원) 이선혜(불교/신도, 5천원) 이선화(경주병원/직원, 3천원) 이세원(경주병원/직원, 1만원) 이소임(불교/신도, 3천원) 이승원(불교/신도, 3천원) 이승진(동문, 2만5천원) 이승진(불교/신도, 3천원) 이승호(불교/신도, 5천원) 이여진(일반/기타, 5천원) 이연정(동문, 1만원) 이영숙(불교/신도, 3천원) 이영자(불교/신도, 3천원) 이윤영(불교/신도, 5천원) 이윤미(경주병원/직원, 3천원) 이은경(불교/신도, 3천원) 이은정(일반/기타, 5천원) 이은주(일반/기타, 5천원) 이정우(불교/신도, 5천원) 이정환(불교/신도, 3천원) 이경훈(불교/신도, 1만원) 이경호(동문, 1만원) 이주호(불교/신도, 3천원) 이지원(동문, 1만원) 이지영(불교/신도, 5천원) 이진욱(동문, 1만원) 이창호(일반/기타, 1만원) 이철현(동문, 1만원) 이창희(일반/기타, 1만원) 이태경(불교/신도, 3천원) 이태민(학부생, 6만원) 조현철(동문, 100만원) 조현철(일반/기타, 3천원) 조화자(불교/신도, 3만원) 조희영(서울/교수, 2만원) (주)앙가코리아(기업/재단, 5만원) 주경희(경주병원/직원, 3천원) 지전스님(스님, 5천원) 진병길(일반/기타, 1만원) 진현성(불교/신도, 15만원) 차미영(동문, 5천원) 천문우(서울/직원, 1000만원) 천강스님(스님, 3천원) 최경현(일반/기타, 5만원) 최경희(불교/신도, 30만원) 최규동(일반/기타, 5천원) 최태해(경주병원/교수, 1만원) 최덕수(동문, 2만원) 최병환(동문, 5만원) 최은미(불교/신도, 1만원) 최진석(불교/신도, 5만원) 최진석(경주병원/직원, 5만원) 최혜수(동문, 2만원) 최효순(불교/신도, 3천원) 충무로치과(기업/재단, 10만원) 하경민(경주/교수, 5만원) 하윤경(경주병원/직원, 3천원) 한강식옥(기업/재단, 5만원) 한정성(동문, 10만원) 한혜경(경주병원/직원, 5천원) 허우주(불교/신도, 1만원) 허지인(불교/신도, 1만원) 현도스님(동문, 10만원) 허덕스님(동문, 1만원) 홍보각(기업/재단, 10만원) 황도골(기업/재단, 10만원)

순자(불교/신도, 5만원) 임유진(동문, 1만원) 임혜미(동문, 10만원) 자선화(일반/기타, 1만원) 장경희(불교/신도, 3천원) 장대석(불교/신도, 3천원) 장두현(동문, 15만원) 장정숙(불교/신도, 5천원) 전주안(학부생, 1만원) 전인식(일반/기타, 3천원) 정각원(사찰, 231만7천원) 정길선(동문, 1만원) 정남이(일반/기타, 1만원) 정도행(스님, 5천원) 정동영(일반/기타, 50만원) 정동형(일반/기타, 1만원) 정명숙(불교/신도, 1만원) 정보현(일반/기타, 3천원) 정서희(일반/기타, 3천원) 정승채(동문, 10만원) 정안스님(스님, 2만원) 정인석(일반/기타, 3천원) 정진아스님(스님, 1만원) 정현식(일반/기타, 5천원) 정호스님(스님, 5만원) 조복현(동문, 10만원) 조성용(동문, 2만원) 조송자(불교/신도, 3천원) 조영철(동문, 1만원) 조원택(학부생, 6만원) 조현철(동문, 100만원) 조현철(일반/기타, 3천원) 조화자(불교/신도, 3만원) 조희영(서울/교수, 2만원) (주)앙가코리아(기업/재단, 5만원) 주경희(경주병원/직원, 3천원) 지전스님(스님, 5천원) 진병길(일반/기타, 1만원) 진현성(불교/신도, 15만원) 차미영(동문, 5천원) 천문우(서울/직원, 1000만원) 천강스님(스님, 3천원) 최경현(일반/기타, 5만원) 최경희(불교/신도, 30만원) 최규동(일반/기타, 5천원) 최태해(경주병원/교수, 1만원) 최덕수(동문, 2만원) 최병환(동문, 5만원) 최은미(불교/신도, 1만원) 최진석(불교/신도, 5만원) 최진석(경주병원/직원, 5만원) 최혜수(동문, 2만원) 최효순(불교/신도, 3천원) 충무로치과(기업/재단, 10만원) 하경민(경주/교수, 5만원) 하윤경(경주병원/직원, 3천원) 한강식옥(기업/재단, 5만원) 한정성(동문, 10만원) 한혜경(경주병원/직원, 5천원) 허우주(불교/신도, 1만원) 허지인(불교/신도, 1만원) 현도스님(동문, 10만원) 허덕스님(동문, 1만원) 홍보각(기업/재단, 10만원) 황도골(기업/재단, 10만원)

연재기획 - 대학언론 편집권 침해 사례를 통해 본 언론자유

잇따른 예산 축소·편집권 간여 언론자유는 어디에

중앙대 교지 예산 전액 삭감 ... 성대신문은 기사삭제 등 충돌 사례 빈번

최근 대학언론은 재정적인 문제, 편집권의 침해, 기자의 수동적인 태도, 독자들의 무관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연재 기획을 통해 2회에 걸쳐 대학언론의 현 상황을 짚어보고, 그 발전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연재 순서

1. 어려움에 처한 대학언론의 현주소
2. 대학언론의 위기 해결책은 없는가?

‘언론’이란 매체를 통해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이다. 대학 언론은 학내 사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론 형성을 위해 방향성을 가진 주장을 해야 한다. 독자에게 찬성이나 반대는 생각해보지 않은 쟁점 사안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언론인의 입장에서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말할 수 있는 정론직필의 의무를 갖는 대학 언론이 현재 그 역할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는 대학 언론이 재정적 문제, 편집권 침해, 학생기자들의 수동적인 태도, 독자들의 무관심 등의 문제로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억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재정압박 받는 대학언론

중앙대 교지 ‘중앙문화’는 학교 비판성 기사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예산을 전액 삭감 당했을 뿐만 아니라 교비지원 명목으로 지원되던 예산이 교지대금 자율납부로 변경됐다. ‘중앙문화’ 사태의 발단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작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월 배포된 ‘중앙문화’ 58호에 언론매체부장이 검토하지 못한 기사와 총장을 풍자한 만화가 게재되었다는 이유로 언론매체부가 3시간 만에 교지를 전량 회수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본부의 예산 삭감 및 교지 지원 명목이 자율납부로 결정됨에 따라 ‘중앙문화’와 ‘녹지’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꾸리고 언론 장례식을 하는 등의 시위를 벌였다. ‘중앙문화’ 측은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학교 측의 강압적인 태도는 편집위원들의 비판적인 사고를 제한하고, 학교정책에 대한 특정시각만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학내언론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이다”라고 말했다. ‘중앙문화’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 당국이 대학 언론에 과도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대부분의 대학 언론이 대학 본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 운영되기 때문이다. 우리대학 교지 ‘동국교지’는 지금 현재 광고 수익과 편집위원들이 모은 자비로 운영되고 있다. ‘동국교지’는 대학당국의 편집권 침해, 예산 압박 등에서 벗어나고자 지난 88년 학교당국과 총학생회와의 합의 하에 별도로 교지대를 걷어 독립된 학생자치

언론기구로서 활동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학교 당국으로부터 “교지대를 냈지만 교지를 받지 못한 학생들이 불만을 표출한다”며 “이와 관련된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등록금 고지서에서 교지대를 제외시켜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양새롬 동국교지편집장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든 학생에게 교지를 우편 발송할 대안을 고안했다”며 “우편 발송 시 발생하는 발송비의 지원을 요구했지만 학교 당국으로부터 자체적으로 마련하라는 말밖에 들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우편 발송비를 마련하지 못한 ‘동국교지’는 교지대조차 지원받지 못하는 상태로 교지 제작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광고 수익금과 편집위원들의 자비로 충당하고 있다. 때문에 발행부수도 6천부에서 2천부로 줄어들었고 페이지 및 교지의 판형까지 줄이게 됐다. 양새롬 동국교지편집장은 “더 많은 내용을 담은 교지를 더 많은 학우들에게 전달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학교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했지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동국교지’의 현실이다.

학교당국의 편집권 침해사례

현재 많은 대학은 학교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삭제토록 하고 대학 내의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게 하는 등 대학 언론의 편집권에 부당한 개입을 하고 있다. 성균관대 학보사 ‘성대신문’의 경우 학교 측이 작년 ‘전 MBC 사장을 지낸 민주당 최문순 국회의원 인터뷰 기사’를 문제 삼아 내용 축소와 면 이동사태가 벌어졌다. 또한 겉으로 드러난 예산 내역보다 실질적 학생에 대한 혜택이 적다는 예산 사용 내역과 관련된 비판적 기사를 학교 측이 문제 삼아 기사의 중요성을 줄이고 내용을 수정해야만 했다. 윤다빈 성대신문 편집장은 “성대신문의 경우 발행 최종 허가권은 총장이 갖고 있다. 총장의 배포승인을 받지 못해 신문의 내용이 수정되는 일이 매학기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가톨릭대 학보사 ‘가대학보’의 경우 최근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작성했으나 정부와 함께 사업 추진하는 학교 당국의 압력에 의해 기사가 삭제되는 일이 있었다. 이계은 가대학보 편집장은 “우리대학이 정부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 염려가 있는 기사에 대한 제재를 가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당시 기사 삭제에 관해 말했다. 연세대 학보 ‘연세춘추’의 경우 2007년 기획취재 면에서 학교재단의 문제점을 지적

했으나 주간 교수진의 압력에 의해 기획취재 면이 사라지고 전면광고로 대체됐다. 명지대 학보 ‘명지신문’은 2008년 비정규직 학교직원의 부당 해고와 관련된 기사를 기획했으나 학교 측의 기사 승인을 받지 못해 결국 그 면 자체가 백지로 발행되는 일명 ‘백지신문’이 발간됐다.

학생기자들의 수동적인 태도

일부 대학언론들은 본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학교 측의 크고 작은 간섭이나 감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것은 언론이 언론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당사자인 학생기자들이 이러한 감압에 대응하는 자세가 수동적이라는 점이다. 과거 학교 비판성 기사를 실었다가 발행이 정지된 적이 있었던 서울의 한 A대학은 “지금 현재는 비판성 기사를 쓸 수가 없다. 학교에서 지정해준 방향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 위치한 B대학 학보 편집장 역시 “수습 때는 불합리한 제도를 벗겨내고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한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막상 편집권 침해나 학교의 감압을 겪다보니 ‘억울하면 올라가라’라는 어른들의 말이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상황을 위기라고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필요함에도 대다수의 학생기자가 이를 불가피하다고 생각해 그대로 수용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학생기자들의 수동적인 태도는 대학 언론의 위기를 초래하는 다른 요인보다 가장 심각하게 작용한다.

대학언론의 자체노력도 필요

대학언론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론직필의 역할 및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대학 언론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고 여론을 형성해야 하는 독자들은 정작 대학 언론에 대해 무관심하다. 김규범 한양대학보 편집국장은 “최근 몇 년간 50% 내외의 구독률로 독자의 관심이 적다보니 여론 형성이라는 언론의 역할에 한계를 느낄 때도 있다. 그에 따라 학교나 총학생회에 비판의 목소리를 낼 때도 목소리가 작아지기 마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대학 언론을 접하는 독자들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김성용(남서울대 전자공학) 군 역시 “학보를 굳이 보지 않더라도 정보를 알아내거나 하는 등의 불편함을 겪지 못한다”고 말하며 대학언론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냈다. 아무리 유익한 정보나 주장이라 할지라도 독자들이 관심



(위부터) ▲여러 대학 학보 사진 ▲지난 2월 2일 진행된 ‘중앙문화’ 언론장례식 퍼포먼스 ▲백지신문으로 발행된 88호 명지대학보

갖지 않는다면 이는 죽은 정보 혹은 주장이 나 다름없다. 이러한 독자들의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

해서는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진명 기자 ljy88918@dongguk.edu

인터뷰 - 동국 교지 양새롬 편집장

“우리도 학우들과 소통하길 원한다”

‘동국 교지’는 지난 1986년부터 본격적으로 학생자치언론기구로서 활동하고 있다. 동국 교지가 설립되기 이전에도 학도호국단 산하 문예부에서 매년 겨울방학에 모여 교지를 제작한 후 흩어지는 임시기구로서 존재했다. 그러나 1986년에 이르러 학원자율화조치 후 총학생회 부활과 동시에 논의됐던 교지편집위원회의 상설기구화가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우리대학의 유일한 학생자치언론기구로 활동 중이다. 하지만 최근 동국 교지는 어려움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동국 교지 양새롬(문창 3) 편집장을 만나 자세히 들어봤다. 양새롬 편집장은 지난 2008년 처음 동국 교지의 편집위원으로서 활동했다. 양새롬 편집장은 동국 교지에 가입한 동기에 대해 “평소 언론인에 대한 꿈이 있었다. 입학 후 1학기는 과 생활등의 문제로 언론사에 가입할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2학기에 들

어 동국 교지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동대신문과 동국 교지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결국에는 학생자치언론기구인 동국 교지에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등록금으로 책정되던 교지대가 사라지면서 동국 교지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지대 책정이 없어지기 이전에는 1년에 2번, 6~7000부씩 발행되던 동국 교지는 현재 2000부 밖에 발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양 편집장은 “교지대의 명목으로 학교 측에서 지원받던 재정이 끊김에 따라 동국 교지의 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 편집장은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

고 대형업체를 통해 광고를 싣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교지 제작에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답했다. 이렇듯 많은 자치언론기구들은 현재 재정적 어려움에 놓여있다. 또한 많은 언론기구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산하 기관으로 들어가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 동국 교지 또한 우리대학 미디어센터 산하 기관으로 들어와 재정적 지원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고민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양 편집장은 “교지대가 없어진 후 재정 문제로 미디어센터로 편제되는 것을 고민했

2006년도 교지대 삭제 ... 상업광고 유치해 근근히 발간 “학생 자치언론 백안시(白眼視) 하는 풍토 너무 답답해”

었다”며 “하지만 내부 회의를 통해 학생자치언론기관으로서의 명맥을 지키고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적 문제 뿐 아니라 대학언론에 관한 독자들의 무관심 또한 대학 언론의 위기를 초래한다. 언론의 역할이 독자들로부터 하려금 이목을 끌어 단합을 이끌어내는 일임에도 독자들의 무관심으로 대학언론 매체들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 편집장은 “언론이라는 것은, 혼자만 존재해서는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없다. 언론을 바라봐주고 참여해 주는 독자들이 있어야만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독자들의 참여가 저조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독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기획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동국 교지, 더 나아가 대학 언론이 위기를 맞이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우리 모두 우리의 소리를 내기 위해선 대학 언론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 대학언론 위기의 타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 때다. 이진명 기자 jeong0424@dongguk.edu

“용의 눈물, 여인천하 등 사극연출 불패 신화”

동국의 가르침으로 40여 년간 248편의 작품 연출한 김재형(국문61졸) 동문

자랑스런 동국인을 찾아 < 5 > 드라마 연출가 김재형 동문



“똥야!” 라는 드라마 속 대사를 기억하는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한번쯤 따라해 봤을 법하다.

이는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 사극 열풍(熱風)을 불러온 드라마 ‘여인천하’에 등장한 명대사다. 그 당시 ‘여인천하’는 전국 평균시청률 48.6%를 기록하며 드라마의 모든 것이 연일 화제를 모았다. 특히 정난정, 문정왕후 등의 여자주인공들이 드라마의 엔딩장면에서 강렬한 눈빛으로 무언가를 응시(凝視)하던 모습은 8년이 지난 지금도 사극계의 명장면으로 꼽힌다. 이 강렬했던 장면의 뒤에는 그보다 더 강한 카리스마로 40여 년간 촬영장을 이끌어 온 김재형(국문61졸) 동문이 있었다.

김재형 동문은 우리나라 TV 최초(最初) 사극인 ‘국토만리’를 시작으로 ‘사모곡’, ‘한명회’, ‘서궁’, ‘용의 눈물’, ‘왕의 여자’ 등의 사극을 연출(演出)해 온 우리나라 사극계의 산 역사다.

40여 년 연출의 힘, 동국

지난 40여 년간 248편의 작품을 연출해 온 그의 힘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김 동문은 “동국대”라고 거침없이 대답했다. 그는 “동국대 재학시절 서정주, 양주동 교수의 강의가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씨앗”이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희곡이 쓰고 싶어 국내 최고로 손꼽히는 우리대학 국문과에 입학한 김재형 동문은 입학에 하자마자 서정주, 양주동 교수의 강의에 매료됐다. 그는 매 강의 시간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던 양주동 교수님의 강의는 졸업한 지 50여 년이 가까이 된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연극부 활동하며 연출가 꿈꿔

그는 당시 최고의 위상을 자랑하던 우리대학 연극부로 활동하며 연출에 대한 꿈을 키워갔다. 1950년대 ‘동대극예술연구회’를 주도하며 연극부의 부흥기(復興期)를 마련했던 장한기, 유지진 교수의 가르침은 김 동문이 연극부 내에서 힘든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또한 선배였던 유현목 동문 역시 그에게 많은 가르침을 줬다. 그는 “청소, 심부름 등을



하느라 힘들었지만 실력 있는 교수와 선배들이 나를 이끌어줬다”며 “그 때의 가르침이 PD생활을 하는 데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김재형 동문이 처음으로 연출을 맡은 작품은 동기였던 오학영 동문이 쓴 ‘명암시대’. 공연이 진행되던 사흘 내내 중강당이 만원세례를 이룰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다고 한다. 그는 첫 작품의 성공으로 인해 연출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중앙대와 서라벌대에 다니던 학생들과 모여 신무대실험극회를 결성해 대학 연극계를 주도(主導)했다. 그 때 그가 원각사에서 연출한 ‘원고지’는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았다. ‘원고지’는 우리대학에 재직 중이던 이근삼 교수의 작품이었다. 김 동문은 내심 이 교수의 조언을 기대했지만 이 교수는 김 동문이 자신에게 의존할까 걱정돼 관심 한번 주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근삼 교수는 공연 첫 날 직접 관람하러 와 김 동문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었다고 한다. 그것이 김재형 동문에게는 열마디의 말보다 더 크게 와 닿았다고 한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

그런 김재형 동문이 연극에서 TV 드라마

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은 우리대학 선배이자 당시 KBS의 국장이었던 윤길구 동문의 권유(勸誘)때문이었다. 졸업을 앞두고 KBS 성우로 활동하고 있던 김 동문에게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소개한 것이다.

그는 텔레비전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이며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텔레비전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그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다”며 “텔레비전이 나에게 새로운 존재였다”고 말했다. 그 때는 텔레비전과 관련된 서적들을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는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아버지에게 텔레비전에 관련된 서적을 받아 공부하기 시작했고 1961년 시험에 합격하며 KBS 개국 요원으로 PD가 됐다.

드라마를 통한 통일이 소원

당시 대부분의 PD들은 현대극에만 집중했지만 김 동문은 과감하게 사극연출을 선택했다. 아무도 하지 않은 새로운 도전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그는 TV 사상 최초 사극인 ‘국토만리’를 시작으로 ‘사모곡’, ‘인목대비’, ‘한명회’, ‘용의 눈물’, ‘왕의 여자’ 등 40여 년간

248편의 작품을 연출하며 사극 연출의 산역사가 됐다.

김재형 동문은 우리대학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 학과의 석좌교수로 지난 2005년 임명(任命)됐다.

그는 석좌교수로 임명된 순간 후배들을 강단에서 마주할 생각에 함없이 기쁘고 떨렸다고 한다. 아직도 그는 눈빛이 살아 있는 열정이 가득한 학생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렌다고 한다. 김 동문은 “내가 아는 모든 걸 쏟아내 전해주고 싶다”며 후배들에게 명강의 보다는 진지한 강의를 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금까지 40여 년간 방송계에서 완성도 있는 사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김재형 동문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작품으로 조선왕조 오백년사를 다룬 남북합작드라마를 제작하고 싶다는 소원을 드러냈다.

어린 시절 분단의 아픔을 겪었던 그에게 그는 대한민국의 연출가로 문화적으로나 통일(統一)을 이루고 싶다고 했다. 그의 40여 년 사극 연출 노하우와 정성이 고스란히 담긴 남북합작드라마를 곧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최진아 기자 gina@dongguk.edu

프로필

△1936년 서울 출생 △1961년 동국대 국문학과 졸업 △1962년 KBS 입사 △1997년 한국 프로듀서상 공로상 수상 △2005년 동국대 석좌교수 △2010년 한국공연예술 종합학교 학장

대표작

△국토만리(1962작) △민머느리(1964작) △사모곡(1972작) △임금님의 첫사랑(1975작) △별당야씨(1976작) △달동네(1980작) △한명회(1994작) △서궁(1995작) △용의 눈물(1998작) △여인천하(2001작) 등

백속에서부터 은퇴준비를 ...

『G7 - Academy CEO Forum』에서 100세 인생의 새로운 길을 안내합니다



은퇴 준비를 위한 100세 인생의 설계 세미나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 당장 은퇴준비를 해야 하는 100세 인생의 시대에 맞는 '100세 인생설계' 전략세미나를 마련하였습니다. 신개념 Four-Channel Technology Solution (G7-Academy CEO Forum)에서 준비한 세미나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5월 18일(화) 09:30 ~ 16:30
- 장 소 : 동국대학교 본관 중강당
- 강 사 : 한완상 / (前)한성대학교 총장
- 예상인원 : 300명(사전 예약자에 한함)
- 장계황 / (주)SID IND 대표이사
- 참가비 : 교재비2만원(신한 140-007-440876 동국대학교행정대학원)
- 장용동 / 헤럴드 경제 신문 편집국장
- 참가신청 : kim0222@dongguk.edu로 신청(성명/생년월일/핸드폰) 후 교재비 입금
- 최은수 / 매일경제 신문 경제부 차장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G7-Academy CEO Forum 연구소
TEL : 02-2260-8575 FAX : 02-6944-8075
http://gsps.dongguk.edu

100세 인생설계 세미나는 사전 예약자에 한합니다. - "By Appointments Only"



박경귀 동문의 불교 복합문화공간 '선 아트 스페이스'

붓 끝에 담아낸 부처님의 가르침



▲ 박경귀 작(作), '가섭존자, 분소의를 입고 고요한 나무아래 앉자'



“불화(佛畵)를 그리는 것은 그분을 만나기 위한 수행인 것을, 내 마음 자리가 정토(淨土)를 볼 때 손 끝의 붓은 그곳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불화에 대한 열정과 연구

예술의 거리 삼청동에 위치한 '선 아트 스페이스'는 불교복합문화공간으로 우리대학 박경귀(불교미술 89졸) 동문에 의해 설립(設立)됐다. 현재에도 '선 아트 스페이스'에서는 박경귀 동문의 붓이 여전히 부처님을 그리고 있다.

박경귀 동문은 친분이 있던 형의 영향으로 13살 때부터 불화에 입문해 전통도제식 교육을 받았다. 우리대학에 진학하기 전까지 박 동문이 접한 탕화는 주로 사찰 탕화를 지배하는 조선시대 불화였다.

우리대학 불교미술과에 입학한 후 처음으로 고려불화를 마주하게 됐고 그 순간부터 박 동문은 고려불화의 매력에 빠졌다. 그를 매료시킨 고려불화는 질서정연한 가족사진과 같은 조선불화와는 달리 불화 속 부처님들은 적극적인 동세를 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박 동문은 “고려불화를 처음 접하게 되면서 불화에 대한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었다”며 “고려불화는 나의 작품세계를 한층 성숙시켜준 계기이자 전환의 계기였다”고 당시 고려불화를 접하게 해줬던 은사 문명대 교수의 가르침을 추억했다.

불교미술과를 졸업한 후 그는 '선불화공방'에서 불화제작을 위해 일생을 바쳤다. 그 결과 박 동문은 성관사의 아미타극락변상도, 무량사 일백사위신중도, 조계사 시왕도, LA태고사 단청 등 수많은 절에 그의 흔적을 남길 수 있었다.

불화 조성에 매진하던 그의 열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수많은 대찰(大刹)에서 수많은 탕화를 그렸던 그는 불화를 이 시대와 현대인들과 만나게 하고 싶었다. 이에 그는 전통불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불교복합문화공간인 '선 아트 스페이스'가 설립 될 수 있었다.

불화를 어렵게만 생각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는 박 동문은 “현대적 붓다가 존재하는 '선 아트 스페이스'를 통해 불교미술의 다양화와 대중화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불교복합문화공간으로

'선 아트 스페이스'는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30~4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지만 불화와 관련된 많은 것을 담고 있다. 지하 1층에 위치한 작은 갤러리 '스페이스선+'는 비영리 복합문화공간으로 인간, 자연, 생명, 환경 등 불교의 공생적 가치가 요구되는 사회현실을 직시하여 사회에 이러한 가치를 쉽고, 재미있는 예술 언어로 소통시키고자 마련된 공간이다. '스페이스선+'에 대해 박 동문은 “자본과 마케팅에 의해 독점되는 예술시장에서 한 걸음 물러서 참된 사람의 숨소리를 듣고 나누고 모아내고자 하는 하나의 바람으로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선 아트 스페이스' 4층에는 '스튜디오 선불화공방'이 있다.

'스튜디오 선불화공방'은 1989년 개원하여 불교회화 연구에 집중해온 불교회화 연구소로 불화연구와 사찰장엄 현대화 시도를 꾸준히 해왔고 앞으로도 불교미술의 다양화와 대중화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선 아트 스페이스'에서는 '아

카데미 선그림'을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놀이형식의 전통회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통회화를 보다 친근하게 가르치고 있다. '실용창작강좌', '전통회화강좌' 등 우리나라 전통미술에 대한 창의적 커리큘럼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미술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비롯해 일반인,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불교미술을 가르침에 따라 포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듯 포교의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선 아트 스페이스'는 현재 조계종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현재까지 '선 아트 스페이스'를 제외한 불교문화공간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그 지원 또한 미비하다. '선 아트 스페이스'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불교 커리큘럼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원이 적어 커리큘럼을 진행하는데 있어 속도가 더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아직도 연구는 끝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동문은 “'선 아트 스페이스'는 이제 첫 발걸음을 시작했을 뿐이다. 첫발을 내딛은 이상 조금씩이지만 초기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에 쌓여 떨어져 곤궁할 때도 선화를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야금을 켜고 대금을 불 만큼 호연지기(浩然之氣)적인 삶을 살아가는 박경귀 동문의 소박한 꿈은 앞으로 더디지만 조금씩 구체화 되어나갈 것이다.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공간 속에서 희망의 청사진(靑寫眞)을 그리는 그의 소망이 날개를 달길 기대해 본다.

백선아 기자 amy@dongguk.edu

송경원의 지면상영

〈3〉 나는 고양이 스토커

고양이의 눈으로 세상을 찍다



▲나는 고양이 스토커 (I am a Cat Stalker, 2009)
장르 : 드라마, 범죄
감독 : 마테오 가로네

영화제에 가면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꼭 한 편 정도는 일본영화를 보게 된다. 상대적으로 진지하고 무거운 영화제 특유의 예술영화들 중 그나마 가볍게 볼 수 있

을 것 같은 인상 때문일 것이다.

가볍다고 하면 얼핏 부정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영화제에서 종종 눈에 띄는 재밌는 일본영화에서는 흔한 팝콘 무비와는 질이 다른 표출(飄忽)함의 향기가 묻어난다.

일본영화 특유의 소소함의 미학이라 해도 좋다. 영화가 될 것 같지 않은 일상의 소재를 찾아내는 그들의 눈높이는 고양이의 신중함을 닮았다. 엄숙주의의 무게에 눌리지 않고 일상에 어루만지면서도 깊이를 잃지 않는 카메라의 발걸음 또한 딱 고양이의 그것을 닮았다. 일본인들이 유난히 고양이를 사랑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올해 전주영화제에서 상영된 〈나는 고양이 스토커〉 역시 제복만으로도 능히 일본영화임을 짐작할 수 있는 영화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닮아 간다.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고양이 사진을 찍고 고양이 지도를 만드는 것이 취미인 현직방 아르바이트생 '하루'는 고양

이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안다. 그만큼 인간관계에 서툰고 낯선 사람을 경계하지만 그러다가도 문득 관심을 자극하면 스스럼없이 다가갈 눈망울을 반짝이는 고양이 스토커 '하루'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녀가 좋아하는 고양이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다.

아사오 하루미의 동명 인기 수필을 영화화한 이 영화는 일종의 성장영화인 동시에 고양이 스토커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영화이기도 하다. 이 영화의 서사는 비교적 단순하다.

어느 날 사라진 서점주인 부부의 고양이 치베를 고양이 스토커 하루가 자신의 '스토커' 능력으로 찾아 나선다는 것이 이야기의 전부이다.

하지만 그것뿐이라면 일본의 저명한 평론가 하스미 시게코가 이 영화를 2009년 Best 10에 올리진 않았을 것이다. 〈나는 고양이 스토커〉는 결과가 아닌 과정을 즐겨야 하는 영화다.

이 영화의 진정한 매력은 고양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형식과 내용의 조화로운 일치에 있다.

주인집 고양이를 찾아나서는 고양이 스토커 하루의 행동을 담아내는 카메라 역시 고양이의 발걸음을 닮았다.

롱테이크는 종종 관습처럼 쓰이기도 하고 그것이 마치 예술영화의 표상인양 사용되기도 하지만, 형식이란 내용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나는 고양이 스토커〉의 카메라는 두드러지게 롱테이크를 선호하지만 고양이를 쫓는 하루의 시선이 될 때면 격렬한 핸드헬드의 사용도 서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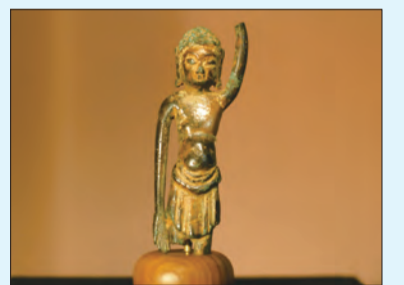
고양이의 시점에서 격렬히 움직이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카메라는 어느 순간 가만히 멈추고 도쿄의 따뜻한 골목풍경을 온전히 담아낼 줄 안다.

일상이 묻어 있는 골목길에 함부로 가위질 하지 않고, 두레박으로 고스란히 걸어 올린 것처럼 공간 그대로를 카메라에 담아내는 영화는 롱테이크라는 형식과 그것이 지향하는 목표가 일치했을 때 얼마나 화면이 깊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 순간 서로 닮은 고양이와 여주인공의 삶은 공명하고 그들을 닮은 카메라를 통해 이러한 공명은 관객에게까지 자연스럽게 전이된다. 고양이처럼 명민하고 사려 깊은 카메라 앞에서, 우리는 가까이 그녀의 혹은 그녀가 쫓는 고양이의 스토커가 될 준비가 되어있다.

영화평론가
영국대학원 영화영상학과 석사 수료

박물관, 이달의 문화재 '금동탄생불입상' 선정



우리대학 박물관이 5월을 맞이하여 이달의 문화재로 '금동탄생불입상'을 선정하고 박물관 1층 상시전시실 내 '이달의 문화재' 전시 코너에서 오는 28일까지 전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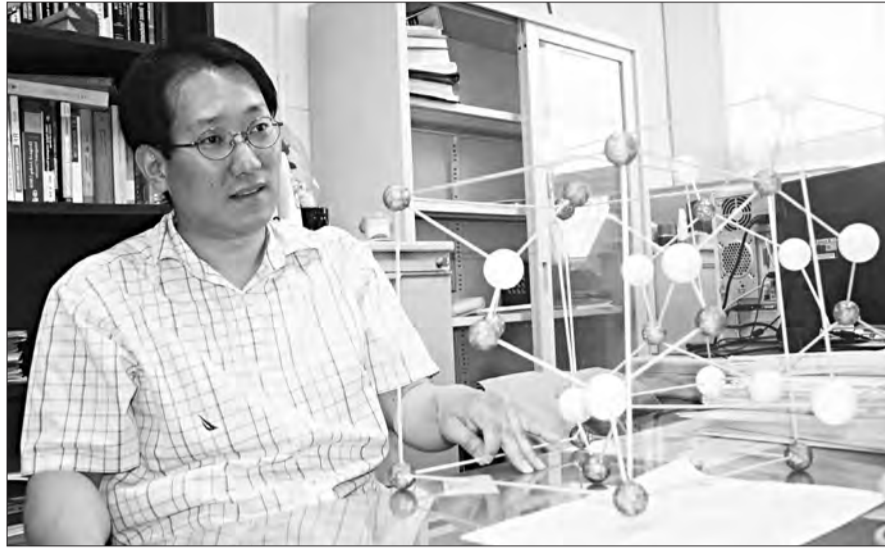
박물관은 2010년 연중기획으로 '이달의 문화재' 전시회를 기획하고, 박물관 소장품 중 미공개 작품과 그달의 의미 있는 작품을 선정해 전시하기로 했다. 5월 문화재는 오는 21일 부처님오신 날을 기념해 신라시대 작품인 '금동탄생불입상'으로 선정됐다.

금동탄생불입상은 높이 10.6cm로 부처님의 탄생순간을 표현한 작품이다.

박유리 수습기자 riri@dongguk.edu

“연구란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

반도체학술상을 받게 된 임현식(반도체과학)교수 인터뷰



▲계면 물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임현식(반도체공학) 교수

미국의 반도체 회사인 인텔(Intel)사는 센트리노(Centrino)칩 기술의 개발로 노트북 성능의 획기적 개선을 불러왔다. 센트리노 칩의 개발은 사용 후 얼마 되지 않아 발열(發熱)이 심하던 기존 노트북의 문제를 최소화하였고, 또한 배터리 소비량을 3분의 1로 줄였다. 이렇듯 새로운 시대의 도약을 가져오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선 어떤 이론이 뒷받침 되어야 할까.

물리학회 반도체 학술상 수상

우리대학 반도체학과에는 반도체 연구에 10년 동안 매진하며 값진 연구 성과를 이뤄낸 교수가 있다. 최근 한국물리학회 정기총회에서 주최한 ‘제 1회 반도체학술상’을 수상한 임현식 교수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임 교수는 반도체 연구학술 활동과 학회 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첫 ‘반도체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는 연구자에게 건넨 값진 상이 아닐 수 없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국제 순수 응용 물리학회에서 주관한 ‘2000년도 젊은 과학자 최우수 논문상 (Young Author Best Paper Award)’에 선정된 바 있으며 임 교수의 논문은 국제 저명 논문지에 70여편 이상 발표됐다. 이처럼 임 교수의 연구는 반도체 분야에 대한 국내 연구의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임 교수는 2007년부터 반도체 분과 운영위원에 위촉 돼 반도체 분과 및 물리학과 발전을 위해 공헌(貢獻)하고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의 노삼규

연구원은 “반도체 국제학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학회 운영위원으로 적극적으로 봉사한 점 등이 한국 물리학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라며 임 교수를 반도체 학술상 후보자로 적극 추천했다고 밝혔다.

“연구함께 한 대학원생들에게 감사”

임 교수에게 수상 소감을 묻자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부담스러운 상이며 연구 그룹 모두가 다 같이 받아야 할 상”이라고 겸손을 표했다.

임 교수가 ‘제 1회 반도체학술상’에서 수상할 수 있었던 연구의 주제는 ‘반도체소자계면에서의 특성’에 관한 것으로 접합면(接合面)으로 이뤄진 반도체가 소자 특성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그는 이 연구를 통해 이중 접합 구조의 접합면에서 발생하는 계면 물질의 고유 특성이 수송 현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세계 최초로 전기적 수송 현상을 이용하여 실험적으로 증명해 보였다.

이번 연구에 관해 임 교수는 “반도체를 물질, 즉 진흙으로 비유하자면 소자는 진흙으로 잘 빚은 그릇에 비유할 수 있다”며 “이러한 성격을 잘 활용하면 구조적으로 복잡한 다양한 소자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반도체 연구는 대부분 하나의 연구 주제를 설정하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되고 디자인된다.

하지만 3M사의 포스트잇처럼 실패를 통해 결과물을 얻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임 교

수는 이번 연구가 후자의 경우와 같이 우연에서 비롯됐다고 말한다. 임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사실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며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보면 기대하지도 못한 부분의 실험이 행운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 교수의 이번 연구 결과는 행운이 아닌 노력의 산물이다.

임 교수의 연구에 대한 열정, 노력을 증명하듯, 임 교수의 연구 논문 발표 수는 우리 대학 상위 5%에 속한다. 임 교수는 “논문을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이 얼마나 많이 인용됐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연구팀에 소속된 대학원생들에게 개개인의 주제를 맡기고 연구를 진행했다. 각자의 연구 주제를 배정받은 학생들은 석사 논문을 쓰기 위해 2년간 자기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이에 대해 임 교수는 “연구팀들이 각자 맡은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에 열성을 다해 주었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우리 연구팀에 우수한 연구원이 많아 행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임 교수 연구팀의 연구원들은 대부분이 졸업 후 대기업 연구소에 입사하는 등 우수한 인재임을 증명하고 있다.

가지 않은 길을 묵묵히 가는 즐거움

연구를 발명하기 위해 400번의 실패를 거듭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400번의 시도는 실패가 아닌, 400가지의 사례를 발견한 것뿐”이라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고 말한다. 이번 임현식 교수의 연구 성과 역시 수 차례 실패를 통해 얻어낸 값진 결과인 것이다.

젊은 나이에 다양한 연구실적으로 우수함을 대내외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그에게 연구란 ‘산을 오르는 즐거움’이다. 또한 자신의 논문이 여러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순간이 ‘산 정상에 올라선 순간’인 것과 같다고 한다. ‘가지 않은 길을 탐험하고 또 탐험하는 것이 연구의 참된 묘미’라 말하며 오늘도 수많은 가능성을 위해 등반길에 오르는 임현식 교수. 남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길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기에 험난한 산을 오르는 그의 여정(旅程)은 밝기만 하다.

백선아 기자 amy@dongguk.edu

연구소 탐방

<4> 기능성 콜로이드 소재 센터

기술 선진화로 미래 산업 한 축 될 것

우리가 평소 친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과 즐겨 마시는 우유 속에는 미세 과학이 녹아있다. 콜로이드가 바로 그것이다. 콜로이드란 기체, 액체 상태에 분산되어 있는 미세 입자를 모아둔 것으로 이러한 콜로이드를 특별한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기능성 콜로이드이다. 기능성 콜로이드 소재란 용액, 분산액, 페이스트 및 분말 형태로 존재하는 마이크로 및 나노 크기의 미세입자 소재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능성 콜로이드 소재는 미래 사회에 주요 사업인 태양전지/연료전지용 소재부터 위에 언급한 화장품 우유 등 현대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센터장 박상권(화공생물공학) 교수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기능성 콜로이드 기술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미래 산업의 중심적 부분을 차지할 기능성 콜로이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미래 산업의 발전에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04년 5월 우리대학은 ‘기능성 콜로이드 소재 센터’를 설립했으며,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기술 교육을 하는 등 기능성 콜로이드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많은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기능성 콜로이드 소재 센터’는 본관과 중앙도서관 사이의 V동에 위치해 있으며 11명의 연구원들이 소속되어 있고 천만 원에서 수 억 원에 이르는 고가 장비들을 토대로 기술적 측면에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관해 박상권(화공생물공학) ‘기능성 콜로이드 소재 센터’ 센터장은 “2004년 5월 지식경제부(당시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지원하여 현재의 연구 센터를 설립했다”며 “현재 연구 센터에서는 연구개발능력이 부족하거나 고가의 측정 검사 장비를 구매할 수 없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능성 콜로이드 소재 센터’는 매년 정부로부터 9억 원, 학교 측으로부터 매칭 펀드 개념으로 2억 원을 지원받아 5년간 총 55억, 그리고 참여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왔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기능성 콜로이드 소재의 연구를 진행함은 물론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기술적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관해 박상권 센터장은 “이러한 프로그램의 예로 기능성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을 들 수 있다”며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부족한 경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관련 전문가를 동원하여 제품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LCS 바이오텍’은 센터에 입주해 기능성 콜로이드 소재 센터와 함께 제품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기능성 콜로이드 소재 센터’는 현재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종료된 상황이다. 설립 후 5년간 정부, 학교, 기업으로부터 지원 받아온 재정이 지난 2009년 7월부터 종료됐다. 박상권 센터장은 “연구 활동 중 어려움이 있다면 재정적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스스로 자립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현재 연구소가 보유한 기기들을 활용하는 등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기능성 콜로이드 소재 센터’의 목표는 세계 일류 상품의 개발 및 관련 업계의 기술 경쟁력을 선진화하고 제품의 국산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기능성 콜로이드 소재 센터’의 지속적 연구를 통해 한국 기능성 콜로이드 기술의 선진화가 실현되길 바란다.

하상원 수습기자 sang1@dongguk.edu

모교방문 희망자 접수 안내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고등학교 때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을 찾아 뵙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드리며, 모교 후배들에게 동국대학교 학생으로서의 자긍심을 보여줄 수 있는 모교방문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신청자격 : 본교 재학생 누구나(휴학생도 가능)
2. 모집인원 : 100명(선착순-예산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3. 접수기간
- 1차: 2010.5.6(목) ~ 5.14(금)
- 2차: 2010.5.17(월)이후 예산범위내에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4. 접수방법 : 학생서비스팀 방문 후 신청
- 신청서 감사의 편지 지참
5. 방문기간 : 2010.5.31(월)까지 모교 방문 후 방문보고서 제출
- 보고서 양식은 홈페이지 공지 참조
6. 지원내용
- 방문보고서 제출 시 문화상품권 지급(경상/전라/제주지역: 4만원, 기타지역: 2만원)
- 모교의 선생님과 후배들을 위한 소정의 기념품 제공(입시홍보 책자 포함)
7. 기타 문의사항은 학생서비스팀(304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 사 지 원 본 부

SC제일은행 부행장 겸 주한영국상공회의소 회장 초청 CEO 특강

SC제일은행 부행장 겸 주한영국상공회의소 Rob Edwards 회장 초청 CEO 특강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 시 : 2010. 5. 20(목) 16:00
- 장 소 : 다량관세미나실
- 강 사 : Rob Edwards 회장
- 내 용 : Career Prospects in International Business

※ 특강 참석자중 10명을 추첨하여 1만원권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문 과 대 학

『철학·사상·문화』 제10호 논문 모집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는 2010년 7월 31일 발간되는 『철학·사상·문화』 제10호에 수록될 논문을 모집합니다. 『철학·사상·문화』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로, 모집 대상 영역은 철학, 사상, 문화입니다. 제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원고 제출 마감일: 2010년 6월 15일(화)까지
- 2) 원고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ischoi@dongguk.edu 또는 bellkei@dongguk.edu)
- 3) 원고 명기사항: 투고자의 성명(한글/영문), 소속, 주소, 전화번호
- 4) 원고 제출 관련사항: 동서사상연구소 홈페이지 (<http://ins-ewt.dongguk.edu/>)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채택된 논문은 2010년 7월 31일 발간 예정인 『철학·사상·문화』 제10호에 수록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동서사상연구소(교내 8838) 또는 연구소 조교 박영식(019-629-166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서사상연구소

社會科學研究 제17권 제2호 원고모집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사회과학연구』(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의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다 음 -

- 분량 : A4 20~30매
- 기간 : 2010년 6월 25일까지
- 발간일 : 2010년 8월 25일
- 보내실 곳 : www.ris.dongguk.edu
- 원고양식 : 사회과학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http://riss.dongguk.ac.kr>)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화제의 책

우주 생성에 대한 물음에 답하다



짧고 쉽게 쓴 시간의 역사

지은이 스티븐 호킹
펴낸곳 까치
18,000원 / 224쪽

천문학의 발달과 더불어 인류는 한 가지 물음을 갖게 됐다. 거대한 우주 공간에 대한 탐탄과 더불어 인류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제는 바로 외계인의 존재 여부이다. 이 같은 물음에 답을 얻고자 인류는 끊임없이 우주를 연구했고, 외계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하늘을 향해 많은 신호를 쏘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활동에 관해 세계적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 지난 4월, 호킹 박사는

영국 외신 등을 통해 우주엔 수많은 천체(天體)가 존재하는 만큼 외계인 또한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또한 기술적으로 진보한 외계인과의 접촉은 지구의 식민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이 외에도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스티븐 호킹 박사의 이 같은 발언을 통해 호킹 박사의 저서들이 주목받는다. '시간의 역사' 또한 이러한 저서들 가운데 하나이다.

'시간의 역사'는 지난 1988년 스티븐 호킹 박사 및 블로디노프 박사를 통해 처음 출간됐으며 현재까지 30여 언어로 번역되어 1천만부 이상이 판매됐다. '짧고 쉽게 쓴 시간의 역사'는 '시간의 역사'가 출판된 지 20년 만에 새롭게 출간된 책으로 그동안의 우주론에 관한 발전의 성과를 수용하여 '시간의 역사'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고 새롭게 쓰는 동시에 더욱 간결하게 마름질한 책이다.

1998년에 출간된 '시간의 역사'는 런던 '런데이 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장기간 올랐으며, 현대 물리학의 가장 어려운 주제들을 다룬 책으로, 이것은 대단한 성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주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가"라는 기초적인 질문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원초적인 질문과 닮아 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읽어보는 것이지도 모른다.

'짧고 쉽게 쓴 시간의 역사'의 핵심 또한 이러한 기초적인 질문에서 시작된다. 이 책은 우주과학과 물리학의 통일이론을 주로 다루고 있다. 원래 책의 핵심을 더 깊고 면밀하게 다룬데다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고, 새로운 이론의 관찰 결과들을 삽입시켰다는 점에서 더 완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책에서 저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초끈이론, 나아가서 초끈이론이 시사하는 브레인 우주론을 다루면서 현재의 시점에서는 초끈이론이 만물의 이론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한다. 양자중력이론에 대한 그의 희망도 책속에 강하게 나타난다.

시간과 우주의 본질, 우주의 역사와 미래와 같은 근본적 문제를 다루는 이 책의 미덕은 최신 우주론의 설명에 그치지 않고, 물리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저자의 철학적 관심을 심도(深度) 있게 보여주고 있다는 데 있다.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이주의 책

끝까지 사는 자의 미덕



옛 시에 취하다

지은이 이종찬
펴낸곳 한결음 더
12,000원 / 287쪽

사물(事物)을 객관적(客觀的)으로 보기 위해선 남들보다 한 발짝 뒤에서 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남들보다 한 걸음 뒤쳐진다는 것은 빠르게 급변(急變)하는 현시대를 살아가는데 있어 뒤쳐짐이 될 수 있지만, 앞선 사물을 바라보기에는 좋은 위치이니 끝까지 사는 이의 판단(判斷)이 가장 정확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남들보다 한 걸음 뒤에서 자기 자신, 그리고 사건, 사물들을 냉정(冷情)한 시선으로 그것들을 객관화(客觀化)하려고 시도한 글이 있다. 뭐든 1등이 아니면 주눅이 들어 어깨가 움츠러드는 오늘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끝까지 살아왔노라고 자처하는 한문학자(漢文學者)의 짧은 글 60편을 묶은 책 '옛 시에 취하다'가 출간(出刊)되었다. 이 책은 옛 시를 통해 현대인의 사는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으니 온고지신(溫故知新)의 가르침과도 다르지 않다. 저자는 한 발 물러서서 사물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라고 권한다. 그래야만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상의 여러 사건, 혹은 사물들을 이렇게 다른 시각(視覺)으로 들여다보는 저자의 뒷배경에는 선시(禪詩), 계승, 유교 경전 등 고전(古典)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깊이와 깨달음이 있다. 독자들은 저자가 풀어내는 옛 시를 읽으면서 수많은 사연과 감성을 지닌 인간의 삶 속에서, 보다 깊고 선명(鮮明)한 이야기를 걸어 올리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옛 시를 억지로 설명하지도, 강요하지도 않는다. 연륜이 묻어나는 너그러운 문체(文體)로 우리네 삶의 이곳저곳을 천천히 더듬어 갈 뿐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들이 쉬어 접해 보지 못했던 옛 시의 속살을 우리네 삶과 밀접하게 연결시킨다. 그리고 시가 가진 특유의 고유함으로, 바쁜 삶 속의 우리들이 나와 내 주변(周邊)을 돌아볼 수 있는 고즈넉한 순간을 마련해 준다. 문학과 삶을 온전히 즐기고 있는 저자의 손길을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독자들은 저자가 말하는 '생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곧 이 순간임을 깨닫게 된다.

고전은 읽는 이의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존재의 필요성이 있다. 독자에게 문학의 참된 가치인 정화(catharsis)의 기회를 부여(賦與)해 주는 것이다. 정화는 해소(解消)며, 유희(遊藝)고, 동시에 치유(治癒)다. 나를 찬찬히 들여다보으로써 인생의 즐거움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박광현 교수의 독서산책

생애 끝에서 외친 그들의 증언



시대의 증언자 쁘리모 레비를 찾아서

지은이 서경식, 번역 박광현
펴낸곳 창작과비평사
13,000원 / 308쪽

몇 해 전 한 출판사에서 번역의뢰를 받았다. 선뜻 하겠노라 확답을 주지 못하고 우선 텍스트를 간내받았다. 내가 주저했던 이유는 번역을 과소평가하는 현실 때문이었다. 요즘 텍스트에 대한 특별한 소명감이 없는 쉽게 할 수 없는 것이 번역 일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텍스트를 읽어보니 그런 이유 말고 더 근본적인 이유에서 내가 번역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 책의 필자는 이미 한국에도 여러 권의 번역서가 나온 바 있는 재일조선인 서경식 교수였다. 그는 1971년에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잘 알려진, 지금도 '기억'하는 것조차 끔찍한 박정희 유신독재가 저지른 잔혹함의 피해자 서승·서준식 형제의 동생이다. '고국'이 그 가족사에 입힌 고통은 한 개인도 떠안기에는 너무도 버거운 암울했던 민족사의 한 페이지가 이미 되었다. 아니, 그 고통은 아직 아물거나 화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저자와 그의 형제들은 식민지와 분단의 민족사가 자신들에게 안겨준 버거운 고통을 마다 않고 그 무게를 짊어진 채 살아왔다. 우선, 그런 삶의 무게를 내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웠기에 나는 번역을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사실, 그 보다 더 주저하게 만든 이유가 있었다. 바로 그것은 서경식 교수가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쁘리모 레비'라는 이탈리아 작가에 대한 나의 무지함 때문이었다. 홀로코스트, 나치의 집단적 광기에서 비롯된 대량학살. 거기에서 살아남은 증언자 중 한 명인 뿌리모 레비의 소설을 나는 읽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대의 증언자 뿌리모 레비를 찾아서' (창비, 2006)라는 텍스트에 대해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고, 어렵게 번역하기로 결정한 후 일본에서 출간된 뿌리모 레비의 번역서 몇 권을 우선 구해 읽었다. 또한 서경식 교수가 자신의 저서를 저본으로 NHK에서 제작한 '아우슈비츠 증언자는 왜 자살했는가-뿌리모 레비를 찾아서'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그리고 번역하는 동안, 아니 번역 후에도 줄곧 왜 한국에서는 아우슈비츠에 대한 관심이 적을까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었다. 식민지배와 전쟁, 그리고 민중항쟁과 인권탄압의 역사로 점철된 한반도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아우슈비츠보다 서대문형무소가 지근거리에 있고,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 노근리 학살, 광주학살 등이 아직 다 '증언'되지 못했기 때문일지 모르겠다.

어느 학자는 20세기 후반기를 '증언의 시대'라고 명명한다. 특히 나치의 잔혹한 폭정과 학살,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 기록이 증언문학의 형태로 세계 각지에서 각국의 언어로 출간되었다. 안네 프랑크를 비롯해 빅터 프랭클, 엘리 비젤, 그리고 뿌리모 레비의 작품들이 그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하지만 서경식 교수의 책을 번역하는 동안 그들의 책은 일본어판으로 참조할 수밖에 없었다. 아우슈비츠와 관련된 한국어 자료의 빈곤함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 빅터 프랭클의 작품을 비롯해 번역 소개되기 시작했다. 그 중 뿌리모 레비의 '이것이 인간인가' (둘베게, 2007)는 제목부터가 왜 우리는 아직 아우슈비츠를 읽어야 하는가를 일러준다. 작가는 이 소설에서 아우슈비츠라는 디스토피아에서조차 소멸될 수 없었던 인간성에 대해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작가는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생환해왔지만, 그의 목소리에 무관심한 세계의 무서움에 쫓겼다 결국 그는 1986년에 자살했다. 그를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작가가 그토록 '증언'하고자 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 작품과 함께 그의 증언문학 3부작이라 불리는 '주기울표' (둘베게, 2007)와 '휴전' (둘베게, 2010)도 읽어 주었으면 한다.

<국어국문학과 교수>

2010-2학기 모범장학금 신청 안내

1. 모범장학금 신청

- 가. 자격**
 - 1) 2010-1학기 취득학점 15학점(4학년 12학점), 평균평점 3.0이상인 자
 - 2) 강의평가 2010-1학기 1차, 2차를 모두 완료한 자(※ 신청불가자: 8학기 이상 등록자, 2010-2학기 복학(예정)자)
- 나. 신청기간:** 2010.05.17(월)~06.2(수)
- (※ 추가신청기간이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바랍니다.)
- 다. 신청방법:** uDRIMS→학사정보→장학→장학생관리→장학생신청(on-line신청)신청하기
- 라. 장학금액:** 2010-2학기 수업료 30% 감면
- 마. 단과대학별 선발 비율 및 선발 기준:** 기준표 참조
- (※ 이과대학, 사회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대학, 미술학부, 연극학부는 성적우수장학으로 전원 선발)

나. 선발 기준

단과대학	선발 기준(%)							
	성적우수장학		모범장학					
	평점평균	영어강좌	평점평균	교수평가	사회봉사	영어강좌	학과참여	
불교대학	90	10	50	30	10	10	-	
문과대학	90	10	40	30	10	10	10	
이과대학	90	10	-	-	-	-	-	
법과대학	90	10	75	5	10	10	-	
사회과학대학	90	10	-	-	-	-	-	
바이오시스템대학	90	10	-	-	-	-	-	
사범대학	90	10	40	40	10	10	-	
경영대학	-	-	50	30	10	10	-	
공과대학	90	10	50	30	10	10	-	
예술	90	10	-	-	-	-	-	
미술연극학부	90	10	-	-	-	-	-	
대학	90	10	-	-	70	20	10	-
대학	90	10	-	-	70	20	10	-
문예창작학과	90	10	-	-	70	20	10	-
영상미디어대학	90	10	40	40	10	10	-	-

※ 영어강좌: 1강좌당 5점(최대10점 부여)
※ 사회봉사: (전체학기 기준) 2010.6.25(금)까지 봉사활동시간에 제출된 사회봉사 인정
※ 세부 선발기준등은 각 해당대학 학사운영실에 확인 요망

3. 기타

가. 이종수혜 대상인 경우 금액이 큰 장학을 적용.
나. 미등록 휴학생의 장학금(교내장학)은 복학 시 이월하여 지급이 가능 함
다. 전과신청자의 장학금은 전과를 희망하는 단과대학의 선발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단과대학	선발인원 비율(%)		계	학사운영실 장학담당 연락처
	성적우수장학	모범 장학(Udrims신청)		
불교대학	-	12.0	-	02-2260-3098
문과대학	8.5	3.5	-	02-2260-3757
이과대학	12.0	-	-	02-2260-3750
법과대학	7.0	5.0	-	02-2260-3742
사회과학대학	12.0	-	-	02-2260-3104
바이오시스템대학	12.0	-	-	02-2260-3304
사범대학	6.0	6.0	-	02-2260-3112
경영대학	-	12.0	-	02-2260-8887
공과대학	2.0	10.0	-	02-2260-3862
예술 대학	미술 학부	-	-	-
	연극 학부	12.0	-	-
	문예창작학과	8.0	4.0	02-2260-3605
영상미디어대학	8.0	4.0	-	02-2260-3764

※ 성적우수장학은 별도의 신청 없이 2010-1학기 성적으로 선발

학 사 지원 본 부

불교지도자로 세상의 빛이 되십시오!

후기 석사과정 신(편)입학 및 지도자 과정 모집 안내(아간)

학 과	전 공	모집인원
불교	불교학, 선학	00명
차문화관련전공	다도·제다	
불교사회복지	사회복지	
생사위례	생사위례	
영성심리상담	영성심리상담	

■ 지원자격
① 석사과정
- 국내 및 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 또는 2010년 8월 학위취득 예정자
- 국내 외 대학원 석사과정생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또는 미수 예정자
- 전공에 관련된 동등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지도자과정
- 각 종교 분야의 스님
- 각 사단법인의 임원 또는 선봉이 된 인력으로서 지도자역할 수행을 갖춘 자

구 분	일 자	장 소
원서 교부 및 접수	2010. 5. 10(월)~28(화)	본 대학원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및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 방문 접수
면접일	2010. 6. 5(토) 10:00~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

■ 목진
- 사명감자본을 신(신)위주하는 사명감자본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한국불교중앙협의회 소속 중년 재능개발(재능)지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불교인민인, 사회적 장애자를 지원함
- 생사위례, 생사위례, 생사위례 또는 지도자과정 수료자는 경제지도자 자격증생성에 공로를 인정하여 혜택

장례비즈니스과정 신입생 모집 안내(아간)

(FBA: Funeral Business Academy)

■ 지원자격
- 관련업계 종사자, 공·사기업 경력자
- 학력제한 없음

구 분	일 자	장 소
원서 교부 및 접수	2010. 5. 10(월)~8. 15(금) 17:00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
면접일	수시	본 대학원 홈페이지 공고

■ 수업인원 및 수업요일
- 1년(2학기)
- 매주 월, 화요일 18:30 - 21:0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로 문의바랍니다.
- TEL. 02-2260-3096/7 • FAX 02-2260-8827
- http://gsbs.dongguk.edu





달하나 천강에

인생의 목표와 꿈

문 봉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최근 여성 산악인 오은선 대장이 여성 최초로 안나푸르나 등정(登頂)을 마지막으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을 달성했다고 한다. 성공한 산악인의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산에 오르기 전에 먼저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 올라갈 봉우리의 예상되는 난관에 대비해 꼼꼼히 준비를 하고,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간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르지 못할 산이 없을 것이다.

인생의 목표를 올라갈 봉우리라고 한다면 대학은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곳이다. 하지만 학교때 좋은 성적을 받는다거나 또는 소위 높은 스펙 점수를 받는 것보다는 사회에 나가서 어려운 난관(難關)에 부딪힐 때마다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더욱더 성공여부를 좌우한다. 세상에는 어려움 앞에서 편하고 쉬운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오르고자 하는 봉우리와 방향이 다르다면 쉽고 편한 길이라도 과감히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

오은선 대장은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하고 전산직 공무원으로 편한 직장생활을 하다가 어느날 자신이 좋아하는 산에 오르기 위해 직장을 포기한다. 때론 올라갈 봉우리를 바라보며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어려서 보여지만 자신만의 꿈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이다. 반면, 어려움 앞에서 올라갈 봉우리를 쉽게 포기하고 꿈보다는 쉬운 길, 편한 길, 폼나는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난 후에 결국 인생의 목표와는 거리가 먼 어느 산골짜기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것이다.

나는 학생들에게 “적어도 졸업후 5년 이내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곳이 가장 좋은 직장이다”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의 관심사는 대기업이다. 마치 대기업에 들어가면 대학 4년 또는 이제까지의 자신의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착각에 빠져있는 것 같기도 하다. 실제로 대기업에 들어간 졸업생들의 업무 만족도는 아주 낮지만, 적어도 이들의 눈엔 대기업보다 더 좋아 보이는 직장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일반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약 10년쯤 지나면 학생때 화려한 성적을 자랑하면서 큰 고민없이 사회에 진출했던 졸업생보다 별로 눈에 띄지 않았지만 끝까지 꿈을 가졌던 상당수 졸업생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뭔가 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동문칼럼

김완석
농학과 85졸업 ·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 기술지원과장

푸른 농촌 희망 찾기 운동

모교를 떠난 지 이십년이 훌쩍 지난 지금, 나는 우리나라 농업 R&D의 중심이 되는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 기술지원과에 몸담고 있다. 동대신문 지면을 빌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후배들에게 소개해 보고자 한다.

농촌진흥청은 농업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기술보급사업, 교육훈련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농업연구소다. 산업발전에 필요한 농업, 바이오, 환경, 식품, 축산, 농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2009년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비전이 선포된 이후 농업분야에서도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고 있다.

각박한 도시생활을 탈피(脫皮)하여, 농촌의 풍요로운 들녘과 맑은 공기 그리고 전원적인 아름다움을 즐기며 생활하고자 새로운 삶을 선택하여 귀농하는 도시인들이 농업-CEO로 거듭나고 있다. 이에 맞춰 농촌진흥청에서는 ‘푸른 농촌 희망 찾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푸른 농촌 희망 찾기 운동’의 핵심은, 첫째, 국민 모두가 신뢰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이다.

둘째,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을 만드는 것이다.

셋째, 농업인 스스로 자립과 희망의지를 확산시키고, 농촌사회의 전통 윤리와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이 ‘푸른 농촌 희망 찾기 운동’을 펼치는 것은 농업, 농촌에 새로운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2009년 이탈리아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식량자급을 위한 농업개발이 강조되었으며,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식량문제 해결에 있어 대한민국을 가장 성공한 국가로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우리의 농업정책 속에 과거의 식량증산일변도의 목표를 탈피하고, 농업, 농촌의 비즈니스가 글로벌 마켓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성공할 수 있는 비전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농업, 농촌의 무한한 가

치를 인식하고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에 참여 할 때, 농촌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싹트려 현재의 우리는 물론 미래의 후손에게 이르기까지 아름답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자랑스러운 동국인 여러분들도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고, 한발 앞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주역(主役)이 되길 바란다.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국인 모두는 장차 우리사회를 보다 아름답고 풍요롭게 할 중요한 희망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바이오 분야와 환경이 미래사회발전의 키워드로 인식되고 있지만, 바이오 분야만이 바이오가 아니며, 환경만이 환경이 아니다.

바이오 분야와 환경과 관련된 모든 산업 기술분야는 물론 경제, 정책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이 어우러져야만 진정한 시너지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현재 좋은 것만 쫓지 말고, 미래사회가 추구하는 것을 미리 준비하는 현명한 동국인이 되길 기원한다.



학생칼럼

이규량
국어교육과 4학년

6.2 지방선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바야흐로 본격적인 선거 기간이다. 후보자들은 나름대로의 각오를 다지며 등록을 마쳤고, 각 정당과 캠프들은 당선을 향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바로 앞으로 2년 후 펼쳐지는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출범 초부터 잡음과 갈등이 많았던 현 정권에 대한 고수론과 견제론이 맞붙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 정치적 불안 요소가 여기 저기 존재하는 상황에서 예봉(銳鋒)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2년 후 정권의 교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정당, 정치인들이 이번 선거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이러한 국면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지 이제는 진지(眞摯)하게 고민해야 될 때다. 사회 각 계 각 층에서 젊은 세대의 너무나도 낮은 투표율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던 의

견집단에서 지금은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소극적으로 변해버린 대학생. 끝없는 경쟁의 문턱과 정치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달했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모습이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란 없다. 참여하지 않음으로서 더욱 배제되고 고립될 것이다. 단지 투표를 하지 않는 것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현황과 정당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20대를 가장 좋아하는 것은 양비론과 기계적 인식이다. 약자가 공권력의 피해를 받아도, 소수자가 사회적 폭력 앞에 치명적인 상처를 받아도, 권력과 부를 가진 자가 부정을 저질러도, 양무세처럼 계속 그런 말만 되풀이한다. 우리는 양심과 정의, 나눔과 연대, 배려와 책임에 대한 개념 등도 모조리 다시 정립(正立)해야 하는 그런 포스트 모던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인가. 한국사회 속에서 어느 것도 믿지 못하고

권위와 위선 속에서 자라난 젊은 세대가 그러한 성향을 가지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허나 이제는 보다 성숙해져야 할 때다. 속한 계급 계층을 위한 정치정당, 정치 담론(談論)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에 맞게 지지를 보내거나 비판을 하거나 해야 하지 않을까? 애써 이런 사회를 모른 척하며 혼자서 스펙 쌓아 먹고 살 길을 찾는 방법도 이제는 한계다. 대학생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세계는 그대로 일 것이다. 움직이지 않으면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대학생들이여, 다른 세계를 바라한다면 다른 미래를 준비하자. 몇 십년 후 사회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우리 세대가 올랐을 때, 아무 것도 만들어 내지 못한 불쌍한 세대라는 말을 듣지 말자. 자기가 원하는 인물에 원하는 정당에 투표를 하자.

만평



2010년 부처님오신날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되는 세상을 꿈꾼다 백선아 기자 amy@dgu.edu

천연특수식품의
인삼,복령,천마·지황,꿀로 만든.....

동옥고

제품허가번호 000001

동옥식품 부설 약용군자원연구소
(생명과학과 명예교수 이 민 용)
문의 전화: 02-2265-9156-7 031-774-9515
011-204-9154 011-470-2211
홈페이지: http://www.dongokgo.com

동옥고는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동옥고는 천연물 재료인 인삼, 복령, 천마, 지황, 꿀 등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식품으로, 병 후 회복기에 있는 병약자나 노인들의 건강 증진, 지구력을 요하는 수험생 또는 정신집중이 필요한 직장인들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며, 여성들에게는 피부를 윤택하게 해주며 변비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성장기 어린이

수험생

직장인

노약자

여약자

자매품

Choco DONGOKGO

초코 동옥고

자매품 초코동옥고는, 동옥고를 섭취하는 분들께 휴대가 간편하도록 만든 제품이며, 어린이나, 학생, 직장인, 여행자들에게 휴대가 쉽도록 하였습니다. 초코동옥고로 건강하고 즐거운 일상이 되세요.

제품의 종류 1kg/500g/300g과 자매품으로 초코동옥고가 있습니다.

세 생명이 싹트는 화창한 봄날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으로 나른해지기가 쉽습니다. 건강식품인 "동옥고"와 "초코동옥고"로 더 활기차고 역동적인 삶이 되세요. 감사한 분들에게 사랑과 효도를 표하는 상품으로 좋습니다.

◆ 판매처: 구내생활동조협(TEL. 02-2260-8949)



사설

사학분쟁 ‘조장’ 위원회인가?

정 대 화
상지대 정치학 교수

사학분쟁 '조장'위원회는 사학분쟁을 조장하는 사학분쟁 '조장'위원회인가?
그렇다. 한술 더 떠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사학비리로 물러났던 구 재단의 복귀를 공공연하게 추진하는 '비리 재단 복귀추진위원회'로 전락(轉落)했다.

대학의 정상화, 분규사학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이 사분위의 고유업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분위는 말은 바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다음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다. 온갖 비리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물러났던 구 재단을 복귀시키는 것이 대학의 정상화인가, 구 재단이 물러난 후 스스로의 힘으로 정상화되어 있는 대학에 구 재단을 복귀시켜 분규(紛糾)를 재연하는 것이 분규사학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인가, 비리재단의 복귀로 학생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길인가?

다가 정이사가 된 사람일 뿐이다. 설립자도 아닌 사람이 정관(定款)을 조작하여 설립자 행세를 하면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다가 구속되어 실형을 살았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육범죄자를 교육현장에 다시 복귀시키는 것이 대학의 정상화라면 그 정상화는 이미 실패한 것이며,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사분위라면 그 위원회는 그것만으로도 존재할 가치가 없는 조직일 뿐이다.
설령 사분위의 설립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제도는 결함투성이인데다 사학분쟁의 조정을 담당할 인적구성에서는 완전히 실패했다. 사학비리 전과자의 복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사학분규를 조정할 수 없다. 더구나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부 조정위원들이 비리재단의 복귀를 외치는 상황에서는 기대할 것이 없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 정책결정권을 가진 정부는 이미 드러난 사분위의 폐단(弊端)을 직시하고 즉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부적격 조정위원을 교체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사설

중앙선관위, 대학 부재자 투표소 설치 적극 나서야

제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일이 점차 다가오는 가운데, 대학가에서도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우리대학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총학생회에서 학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 운동을 적극 시행 중이다. 상경한 대학생들이 고향에서 수고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해 보다 쉽게 투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부재자 투표 신고가 내일(18일) 마감되는데도 불구하고 각 대학에 부재자 투표소 설치가 난항(難航)을 겪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재자 투표 예정자가 2천 명을 넘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대학 총학생회도 14일까지 부재자 투표 신청을 받은 현재 약 1천여 명에 그쳤다. 공직선거규칙에는 2천 명 미만인 경우에도 지역선관위가 지리, 교통,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역선관위는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고 있다. 한정된 인력과 예산도 부재자 투표소 설치에 걸림돌로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중앙선관위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 문제가 현안으로 제기됐으면,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와 함께 대책을 내놓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는 서로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대학생들의 저조한 투표율은 큰 문제로 지적됐다. 중앙선관위는 대학생들의 투표율 높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중앙, 지역선관위는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가 어렵다고 항변(抗辯)하기에 앞서, 우선 대학생들의 선거 참여를 깊이 고민했는지 반성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바이오대 이전, 여론 수렴 필요하다

전략기획본부가 오는 25일 바이오시스템대학(이하 바이오대) 이전설명회를 통해 바이오대 이전에 관한 해당 당사자인 교수, 직원, 동문, 학생들에게 이전(移轉)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그동안 바이오대 이전 문제를 두고 확실한 정보 없이 '바이오대 이전'이라는 목표만 대외적으로 제시돼, 바이오대 내부에서는 혼란(混亂)이 발생했다. 이번 설명회가 바이오대 내부 구성원들의 혼란을 진정시키고, 이전 문제에 대해 구성원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바이오대 이전문제는 약대 유치 이후 일산의 생명과학캠퍼스(이하 일산캠)를 건립하면서 불거졌다. 우리대학이 제시한 일산캠 운영방안은 의과대학·한의대학·바이오시스템대·약학대학을 한 캠퍼스에 집중시켜 의생명과학분야 연구에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다. 국내 최고의 의생명과학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해 이 네 개 대학 간의 긴밀한 협조와 교류를 통한 BT연구의 특색화가 절실(切實)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의 절차적 민주성과 구성원들과의 소통의 문제다. 명분이 좋다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구성원들 간의 의견조율과 합의가 없다면 좋은 명분도 퇴색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학교당국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바이오대 이전과 관련해 진정성있게 구성원들과의 소통에 나서야 한다. 의생명과학캠퍼스는 '제 2의 창학'이라 부를 만큼 그 규모와 발전전략에서 향후 우리대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많은 이들의 지적이다. 그만큼 구성원들에 대한 여론 수렴과 소통은 중요하다. 이번 설명회가 끝이 아닌 소통의 첫 단추이기 기대해 본다.



메아리

정 응 재 기자
wonder@dongguk.edu

반구제기(反求諸己)

▲중국 하(夏)나라 때 제후인 유호는 군대를 이끌고 하나라를 침략했다. 하왕 우는 아들 백계를 내세워 유호를 물리치도록 했다. 하지만 백계는 참패했다. 백계의 부하들이 그에게 다시 한 번 싸우자고 요청했을 때 백계는 "다시 싸울 필요 없다. 나는 내 자선으로부터 원인을 찾아내 더욱 노력하고 자신부터 바로잡는 일에 열중해야 옳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백계는 이후 국정에 최선을 다해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다. 이후 사람들은 일이 잘못되었을 때 먼저 자기 자신에게서 결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이를 고치는 사람을 가리켜 '반구제기(反求諸己)'하는 사람이라 불렀다. ▲조선일보가 '광우병 촛불 그 후 2년'이란 주제로 촛불집회에 대한 특집 기사를 내보냈다. 조선일보는 기사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거나 촛불 시위에 참가했던 학생, 교수, 시민 등을 인터뷰

부해 당시 그들의 입장과 현재 생각 등을 보도했다. 문제는 보도의 내용이었다.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당시의 시위참여를 후회 내지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보도의 요지였다. 그리고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대통령까지 나서 촛불을 들었던 이들의 반성을 촉구하고 나서 과문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조선일보는 촛불집회가 일어나기 몇 해 전 광우병 파동이 있었을 때 노무현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질타하며 국민건강권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쇠고기 수입협상을 재개하자 이번에는 정반대로 광우병 의혹은 부풀려진 것이라며 정반대의 입장으로 돌변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같은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인터뷰

에 응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뒷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다. 인터뷰 내용의 전후 맥락을 거두절미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 가공했다는 것이다. 가령 김성환 전 장관 관련 기사에서는 '20개월 초식햄버거'를 먹었다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에게 그가 광우병 위험을 강조하면서 바로 그 쇠고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고 다녔다는 뉴앙스를 풍기는 전형적인 제목 왜곡을 했다. 촛불 소녀 정은진, 유선경 양 역시 인터뷰의 앞뒤 문맥이 다 잘린 채 제멋대로 보도됐으며 황당해 했다. 조선일보의 사시(社是)는 '정의 옹호(正義擁護), 불편부당(不偏不黨)'이다. 시위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에는 숨어있다가 이제와 또 다시 인터뷰 왜곡에 나선 조선일보. 지금 조선일보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뒤돌아 보는 '반구제기(反求諸己)'의 자세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WEEKLY NEWSPAPER 1950년 4월 15일 창간
발행인 오영교, 편집인 유현우, 편집장 정응재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2010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1. 모집과정: 석·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과간 협동과정
2. 모집인원: 학위과정별 각 학과 약간명
3. 지원자격: 국내·외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 취득자 또는 2010년 9월 이전 취득예정자
4.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구술(면접)고사
5. 전형일정: 원서접수 2010. 5. 12(수) ~ 2010. 5. 18(화), 전형일 2010. 5. 29(토), 합격자발표 2010. 6. 8(화)
6. 장학혜택: 이공계 대학원 석사/박사 신입생 전원 수업료 전액 장학금 지급(최초 학기 1회)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www.dongguk.edu) 모집요강 참조
8. 서울캠퍼스 입학처 입학관리팀 T. (02)2260-8861-4

2010학년도 후기 법무대학원 신입생 모집
1. 모집과정 및 인원: 석사학위과정(야간) 00명
2. 입학전형일정: 구분, 일정, 장소
3. 입학전형일정: 학과, 세부전공, 응시자격
4.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5. 특징: 공직자우대장학, 총장장학, 교직원장학, 승려장학 등 다수 장학혜택 있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대학원 학사운영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전화 02)2260-3742 · 3227 / 팩스 02)2260-3941
8. 법무대학원 홈페이지: http://gslaw.dongguk.edu

2010학년도 후기 외국인 대학원 신입생 모집
1. 모집과정: 석·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과간 협동과정
2. 모집인원: 학위과정별 각 학과 약간명
3. 지원자격: 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나. 국내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16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하고 학사(석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4.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구술(면접)고사
5. 전형일정: 구분, 일정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www.dongguk.edu) 모집요강 참조
7. 서울캠퍼스 국제화추진단 외국인서비스센터 T. (02)2260-6981-2

금주의 식단
동화국관목금(5/17) 5월(17) 삽산적구이(2200)/치즈돈가스(3000)/불고기소스볶음밥(2200)/부대찌개(2500)
상록원(5/17) 5월(17) 갈비경단(2200)/치킨가스(2500)/매운오삼볶음밥(2200)/불낙전골(3000)
아리수(5/17) 5월(17) 데리야끼치킨덮밥(2200)/치즈돈가스(3000)/간자장밥(2000)
혜화관(5/17) 5월(17) 삼겹살야채비빔밥(2200)/김치치즈소떡(2500)/쇠고기당면떡볶이(2200)

입 학 처

법 무 대 학 원

국 제 화 추 진 단

스승의 날, 동악에 꽃피운 1만겹(劫)의 인연

불교에서는 스승과 제자를 1만 겹(劫)의 인연이라고 말한다. 부모와 자식으로 맺어지는 것과 같은 인연이다. 부부는 8000겹, 형제는 9000겹의 연이니, 사제(師弟)의 연은 이보다 더 각별한 셈이다. '불교 미술'을 통해 이뤄진 1만 겹의 인연을 특별하게 이어 가고 있는 사제지간이 있다. 그들은 김창균 불교 미술학과 교수와 문명대 명예교수이다. 스승의 날을 맞아 단과대 별 사은회 동행 취재와 함께 현재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의 은사(恩師)를 찾아 그들간의 특별한 사제지간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김창균 불교미술학과 교수의 스승은 불교 미술사 연구의 2세대 학자로, 불교미술 연구의 중심축으로 여겨지는 문명대 명예교수이다. 더불어 문명대 명예교수의 은사는 우리나라 미술사학계의 제 1세대이자 불교미술사학의 최고 원로(元老)인 황수영 명예교수이다. 그들은 3대에 걸쳐 '불교미술'이라는 학문을 통해 인연을 다져왔기 때문에 서로의 스승, 제자로서의 모습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다.

3대에 걸친 사제의 정

문명대 교수는 입시 면접 당시 누구보다 당찬 제자의 첫 인상을 잊을 수 없다고 한다. 그는 "김창균 교수는 재학 당시에도 사찰 현장 답사에서 남들이 쉬는 시간에도 우직하게 그림을 그리는 열정(熱情)이 가득했던 제자였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문명대 교수는 황수영 교수와 석굴암 불상조각 연구 관련하여 박사 학위는문 지도 교수와 제자로 만났다. 석굴암 복원을 지휘할 정도로 불교미술 자타 공인이었던 황수영 교수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는 문명대 교수. 그는 스승의 날마다 찾아오는 제자들을 볼 때 마다 황수영 교수와의 추억도 떠오른다고 한다. 그는 병상에 누워 계시는 스승님의 쾌차를 바란다는 말로 제자와의 대화를 시작했다.

항상 함께 하는 사제 지간

매년 5월 15일이면 은사 문명대 교수가 퇴임 직후 자리 잡은 '한국 미술사 연구소'를 방문하는 김창균 교수의 두 손에 올래에도 카네이션이 들려있었다. 이들이 모인 자리에는 35년 간 이어져온 사제 간의 추억 이야기로 가득하다. "재학시절 교수님이 계시던 연구소와 박물관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 동기들이 유난히 질투(嫉妬)를 많이 했다"며 그 당시를 회상 했다. 항상 불교 미술

에 몰두하던 제자 김창균 교수에게 유난히 애정이 깊었던 문명대 교수는 김창균 교수를 자신이 머물러 있던 연구소와 박물관에 자주 초대했기 때문이다. 그 만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던 그들은 문명대 교수가 퇴임한 후에도 지속됐다. 불상(佛像)의 발생지로 꼽히는 파키스탄에서의 초기 간다라 불상 발굴(發掘) 프로젝트, 최초의 러시아 연해주의 발해 유적 발굴 등 불교 유적 답사 현장이라면 언제나 함께 한다는 그들. 그 때마다 환상의 팀워크를 발휘한 그들의 추억 이야기로 대화는 무르익어갔다.

문명대, 김창균 교수는 "스승님의 아낌없는 애정덕분에 불교 미술학에 더 매료될 수 있도록 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스승의 애정이 이뤄낸 성과

문명대 교수의 세계적인 선사시대 바위그림 유적 '반구대 암각화'의 최초 발견도 스승의 지원 덕분에 이뤄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황수영 교수님은 그 당시 박물관 전임 연구원으로 있던 나에게 새로운 불적(佛蹟) 조사를 기획해보라 권유했다"며 "반구대 암각화와 관련해 연구에 필요한 연구비 지원 및 지도를 해주셨기에 이뤄낼 수 있었던 성과다"라고 밝혔다.

불교 미술학의 원로 황수영 교수조차도 실패한 석굴암 조각 전체 실측(實測)을 문명대 교수와 그의 제자들이 77년에 최초로 성공했다고 한다.

역사적인 순간을 그 당시 학부생이었던 김창균 교수도 함께했다. 김 교수는 "항상 중요한 발굴 유적 프로젝트 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기회를 준 문명대 교수님께 감사하다"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남몰래 건네주던 스승님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그들은 불교미술의 진흥(振興)을 위해 인연을 이어갈 것임을 약속했다.

동악에 꽃핀 사제의 정

지난 14일 동악도 역시 스승의 가르침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며 학생, 교수 모두가 함께하는 분위기였다. 카네이션 전달식과 사제가 함께하는 점심식사 자리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는 사제 지간 평소에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었던 자리였다.

경영학과 교수와 그의 제자들은 "옥상정원에서 바베큐 파티 덕분에 평소에 못 다한 이야기도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다"고 웃으며 말했다.

다산 정약용은 '학교가 학교다우려면 참 스승이 있어야 한다. 참 스승을 귀히 여기지 않는 학교는 빈 건물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동악은 1만 겹의 인연인 사제(師弟)가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기쁜 스승의 날을 보내는 듯하다.

이신혜 기자 leeshin@dongguk.edu



①1977년 석굴암 조각 전체 실측(實測) 최초로 성공했던 그 당시를 회상하는 사제지간 ②스승인 문명대 교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제자 김창균 불교미술학과 교수 간의 다정한 모습 ③옥상정원에서 이뤄진 경영대 사제 간의 즐거운 바베큐 파티 현장



세상을 바꾸는 힘
세상을 깨우는 이름

dongguk UNIVERSITY

내 열정은 무한대* 세상의 기대보다 더 큰 내가 되고 싶다

너의 열정에 플러스-동국

»국고지원사업 수주 600억 돌파
»산학협력 중심대학 선정
»해외 우수 연구기관 유치사업 선정
»미래 유망 융합기술 파ioni어 사업선정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0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모집

대학원명	원서접수일자	전형일시	홈페이지주소
일반대학원	5.12(수)~18(화)	5.29(토)	http://gs.dongguk.edu
경영전문대학원	6.7(월)~25(금)	7.3(토)10:00	http://mba.dongguk.edu
영상대학원	5.19(수)~28(금)	6.5(토)10:00	http://dic.dongguk.edu
불교대학원	5.10(월)~25(화)	6.5(토)10:00	http://gsbs.dongguk.edu
법무대학원	5.10(월)~24(월)	5.26(수)19:00	http://gslaw.dongguk.edu
행정대학원	5.10(월)~20(목)	5.29(토)14:00	http://gspa.dongguk.edu
교육대학원	5.10(월)~16(일)	5.29(토)10:00	http://gsedu.dongguk.edu
문화예술대학원	5.10(월)~21(금)	5.29(토)09:00	http://gsca.dongguk.edu
언론정보대학원	5.10(월)~26(수)	5.29(토)10:00	http://gsci.dongguk.edu
국제정보대학원	5.10(월)~26(수)	5.29(토)14:00	http://gsiai.dongguk.edu